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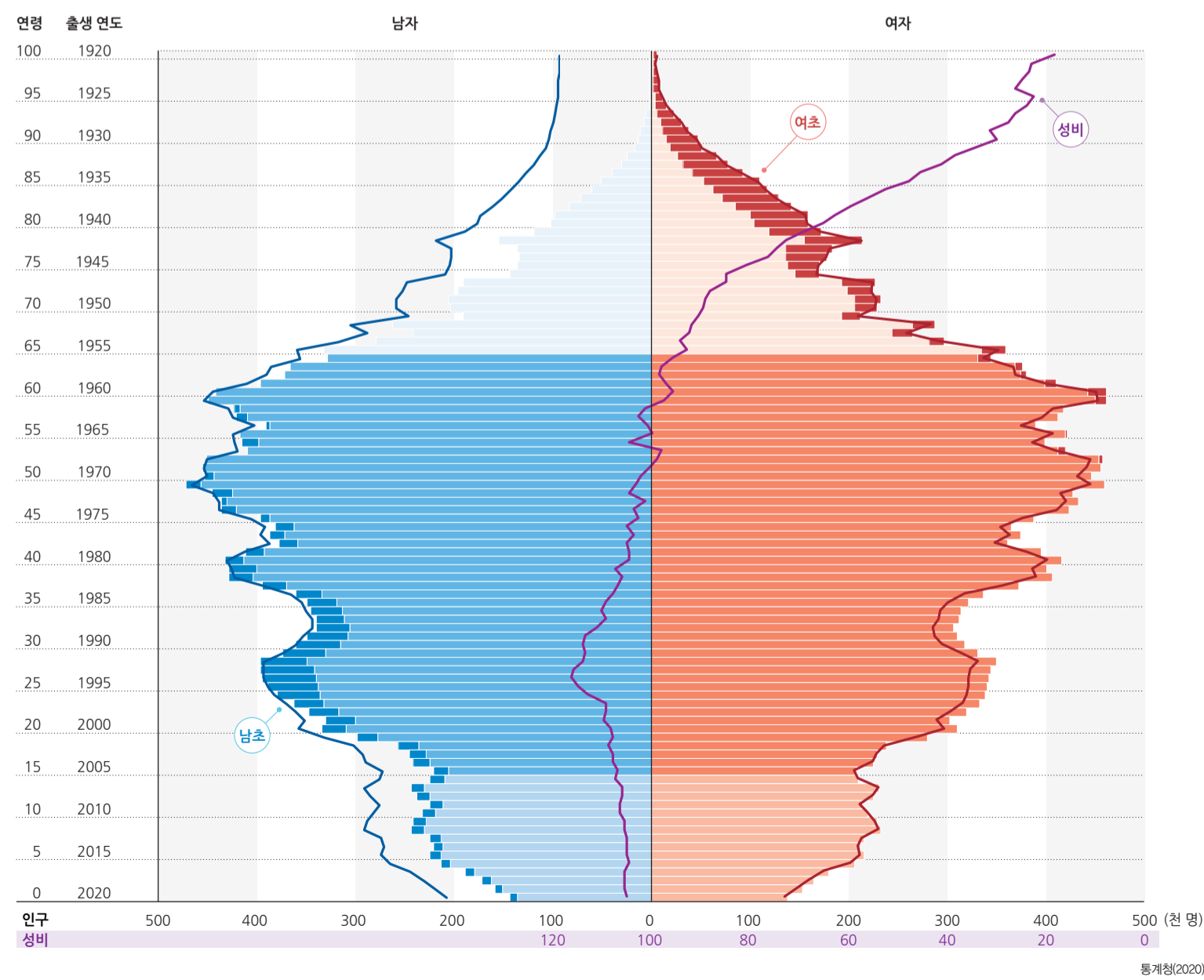
인구 구조와 인구 추계

출생 및 사망과 같은 인구의 변화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 구조는 일정 시점에서 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인구 구조는 성·연령에 기초한 인구학적 또는 생산·비생산에 기초한 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구학적 구조는 1세 간격으로 남성과 여성의 인구를 집계하여 분류한 인구피라미드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중년층(30~49세)과 장년층(50~64세) 인구가 전체의 약 56%를 구성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와 내국인 인구의 중위연령은 각각 43.9세와 44.3세로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영유아층(0~5세)과 아동층(6~12세)의 구성비는 노년층보다 낮는데(각각 약 4%와 약 6%),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 장차 우리나라는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수 있다. 인구 구조를 성별로 살펴보면 59세를 기준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남초 현상이 나타나며, 이와는 달리 60세 이상에서는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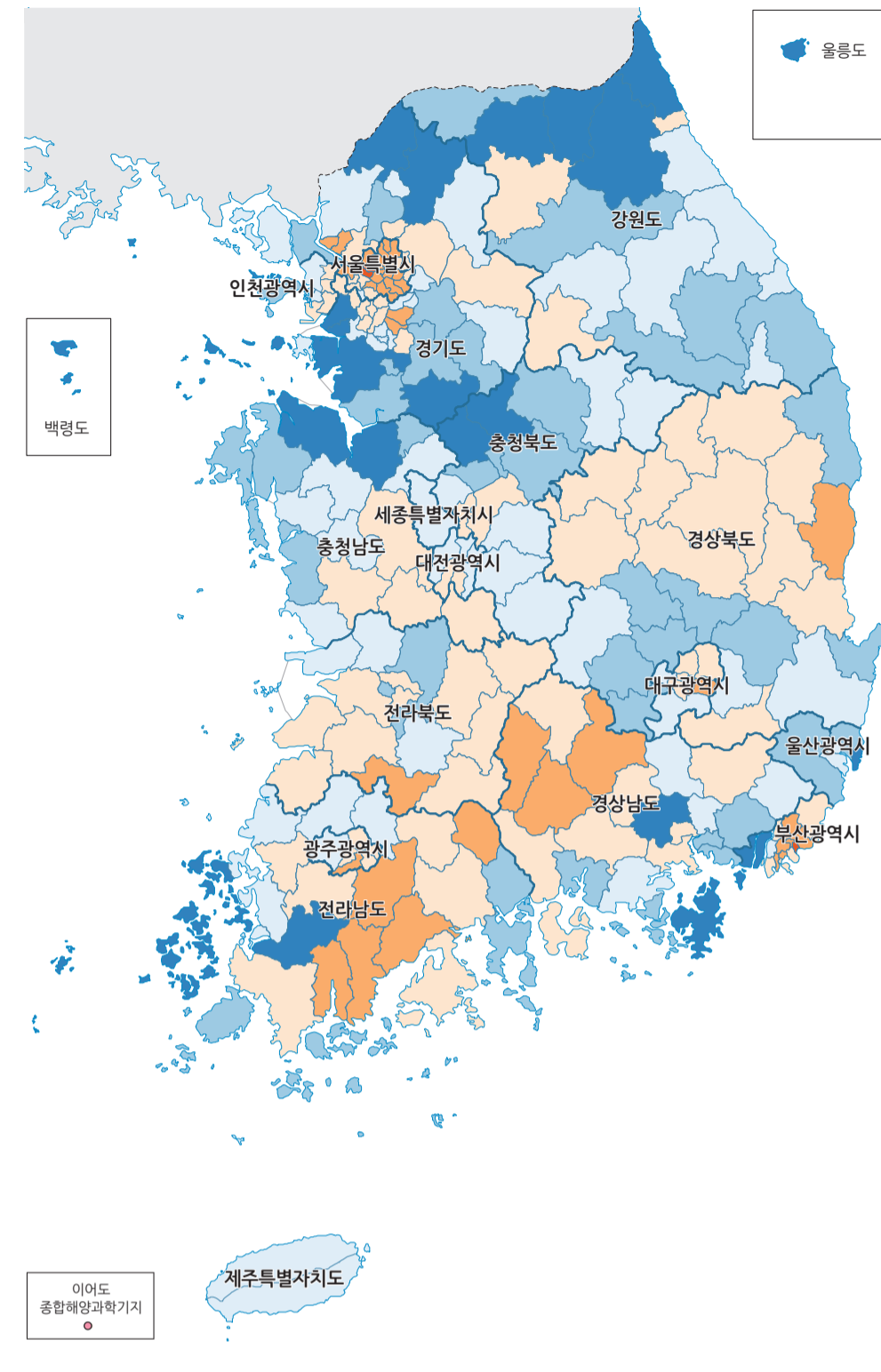
경제학적 측면의 인구 구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유소년인구(0~14세) 또는 고령인구(65세 이상) 사이의 비율인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와 총부양비로 살펴볼 수 있다.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는 각각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비율을 말하며,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을 의미한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총인구 기준 약 22%, 내국인 기준 약 23%)는 유소년부양비(약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 현재 총부양비는 총인구 기준 39%와 내국인 기준 40%인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차 이 부양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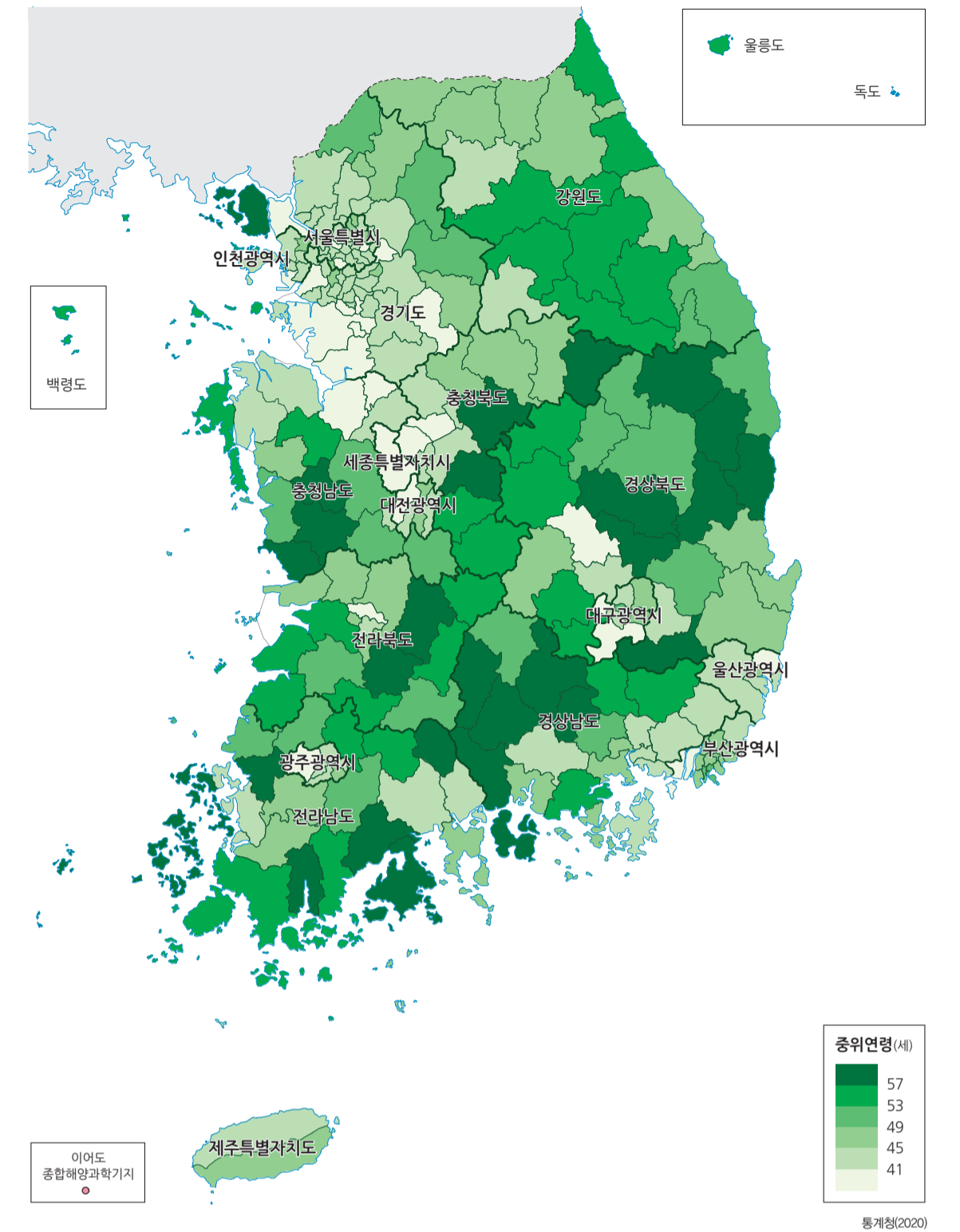


인구 구조 현황

시·군·구 성비(2020년)



시·군·구 중위연령(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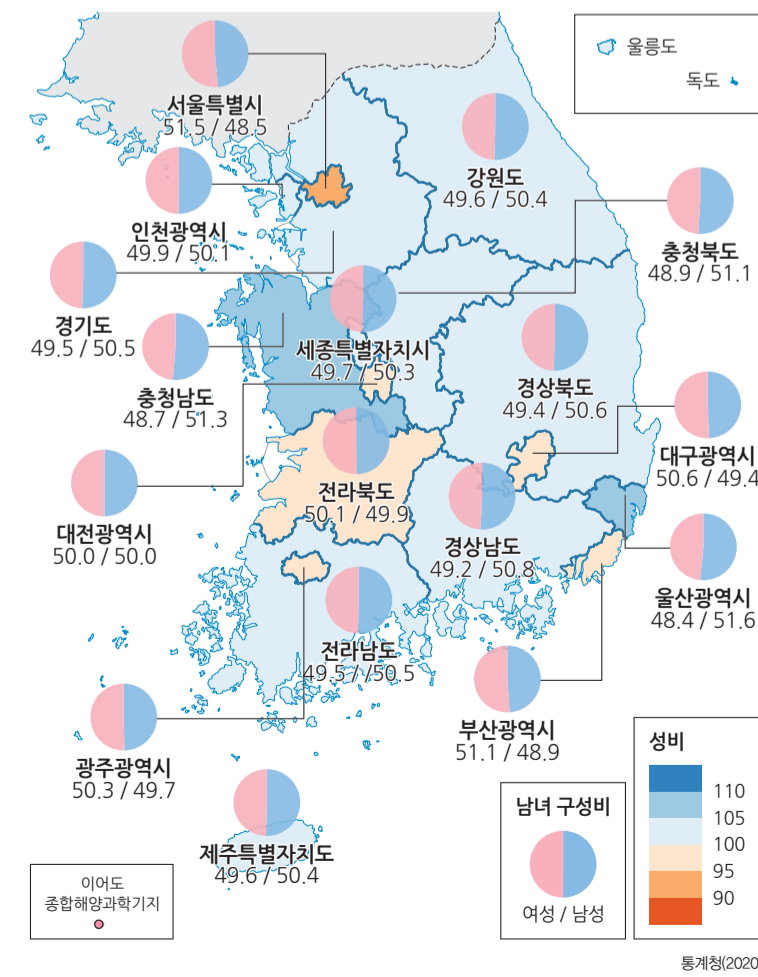
인구의 성별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인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남성 인구/여성 인구×100)를 의미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성비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로 인해 여성 인구보다 남성 인구가 더 많은 편이었다. 1966년 이후 차츰 낮아지던 성비는 2010년에는 98.7까지 이르러 대체로 균형을 이루는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성비는 100.6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수가 약간 많다. 성비의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 단지 입지로 공업이 발달한 경기 남부, 충청과 충북의 북부, 울산과 거제 등 지역에서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도 성비가 높은 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호남과 영남의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서울 대부분 구에서도 성비가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성비 특성은 시·도별 분포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와 전북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지역이며, 특히 서울의 성비가 가장 낮다. 그 외 지역에서는 남성 인구가 더 많으며, 울산, 충남, 충북 순으로 성비가 높다(각각 106.6, 105.5, 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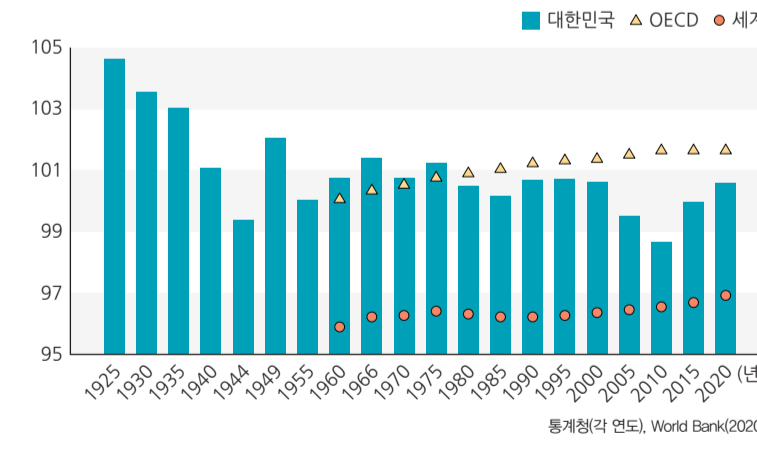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한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중위연령은 1960년대 중반까지 19세 이하로 비슷했으나, 이후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높아져 2020년에는 약 44세로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인구의 중위연령이 남성보다 높으며, 그 차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위연령의 시·군·구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 중위연령이 낮으며, 근급 행정 구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산업이 발달한 경기도와 충청과 충북 북부 지역에서도 중위연령이 낮은데, 이는 생산 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의 집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위연령이 높은 대부분 지역은 인구소멸 상위 시·군·구들이며, 특히 경북의 의성군과 군위군, 전남의 고흥군 및 경남의 함천군은 중위연령이 60세 이상인 시·군·구들이다. 이들 지역은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중위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연령은 세종시에서 가장 낮고(38세), 전남에서 가장 높다(48.8세). 이외에도 경북, 전북, 경남의 중위연령도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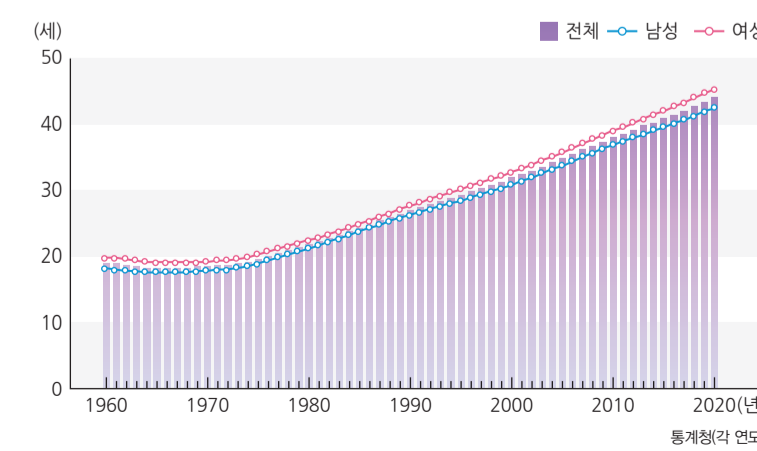
시·도 성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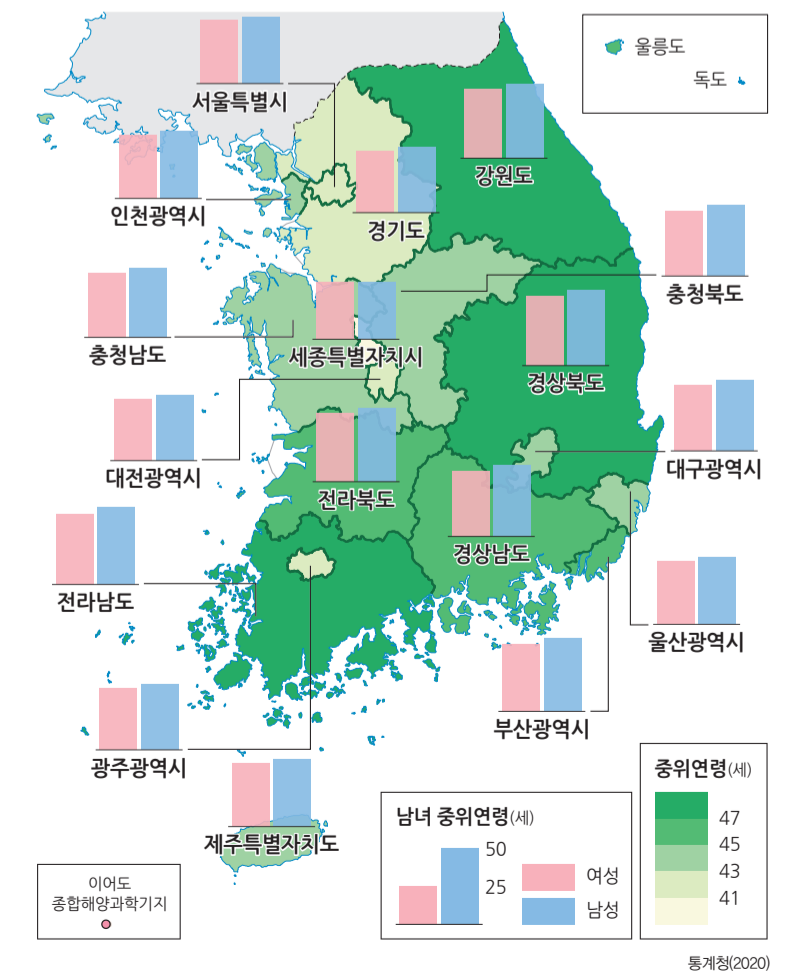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세계, OECD 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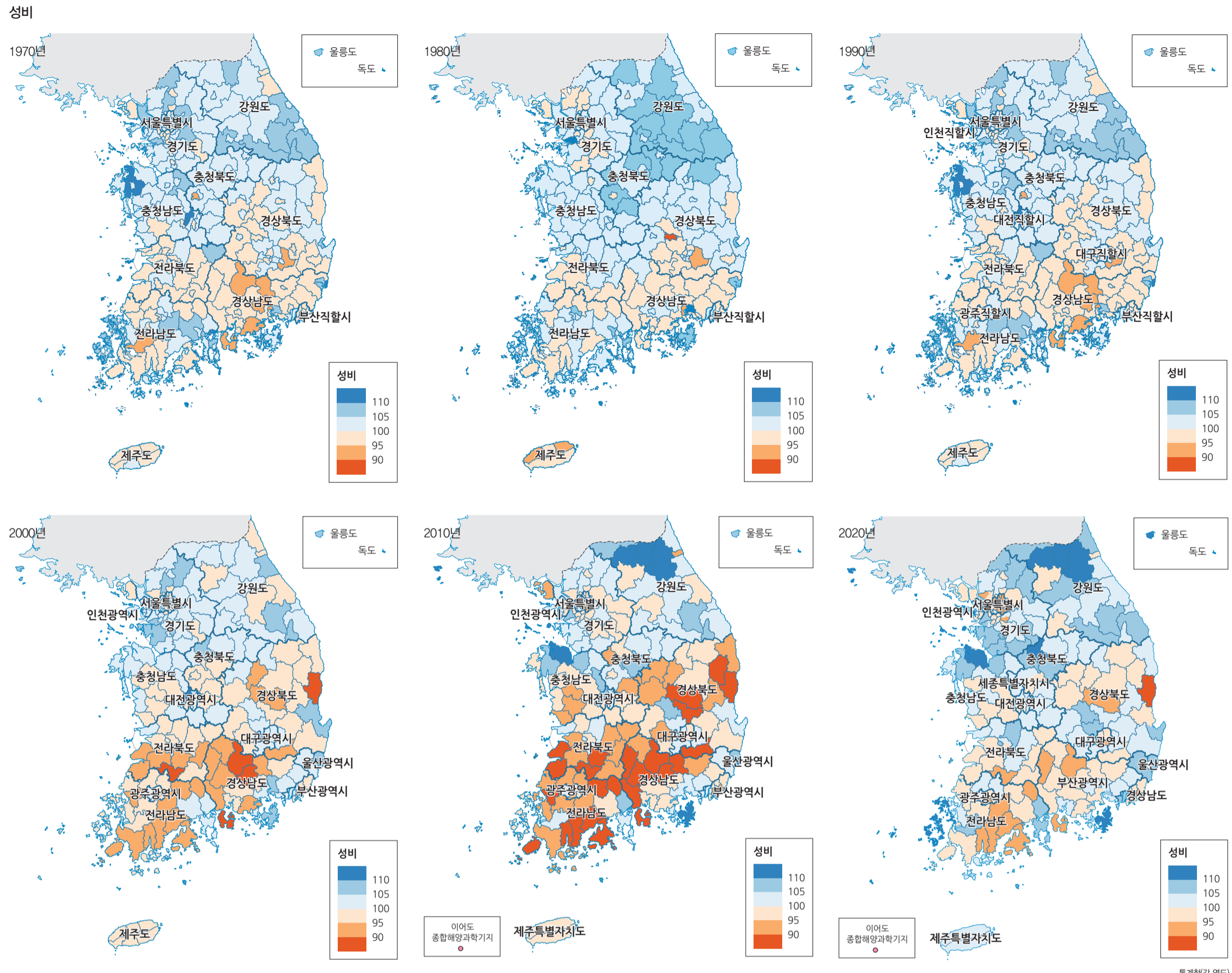
중위연령 변화



시·도 중위연령(2020년)



내국인 인구 구조 변화



우리나라 내국인 성비가 낮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의 성비보다 낮은 편이다. 2020년 현재 총인구의 성비는 100.6이었으나, 내국인 인구의 성비는 99.3으로서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많음을 의미한다.

내국인 성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에 높아지고 있으나, 나

머지 권역에서는 대체로 낮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성비가 가장 낮으며, 충청권의 성비가 가장 높다. 전국과 같이 시·도에서도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성비보다 내국인 인구의 성비가 낮는데, 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남성의 수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970~2020년 사이 시·군·구별 내국인 인구

의 성비도 차츰 낮아져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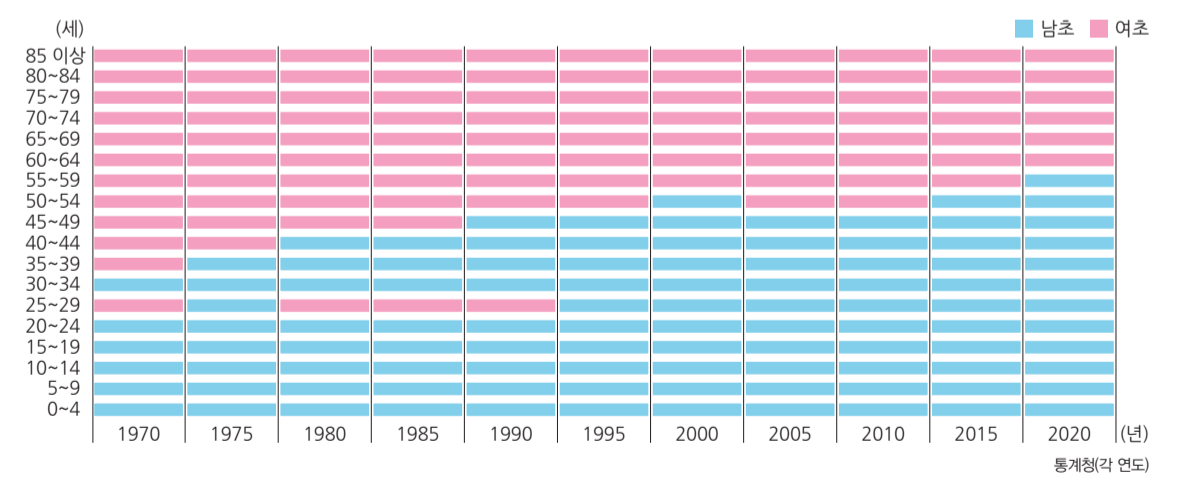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의 연령층별 성비 특성은 5세 연령층 성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0~2020년 사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성 인구가 더 많은 여초 현상이 주로 나타나지만, 50세 미만의 연

권역별 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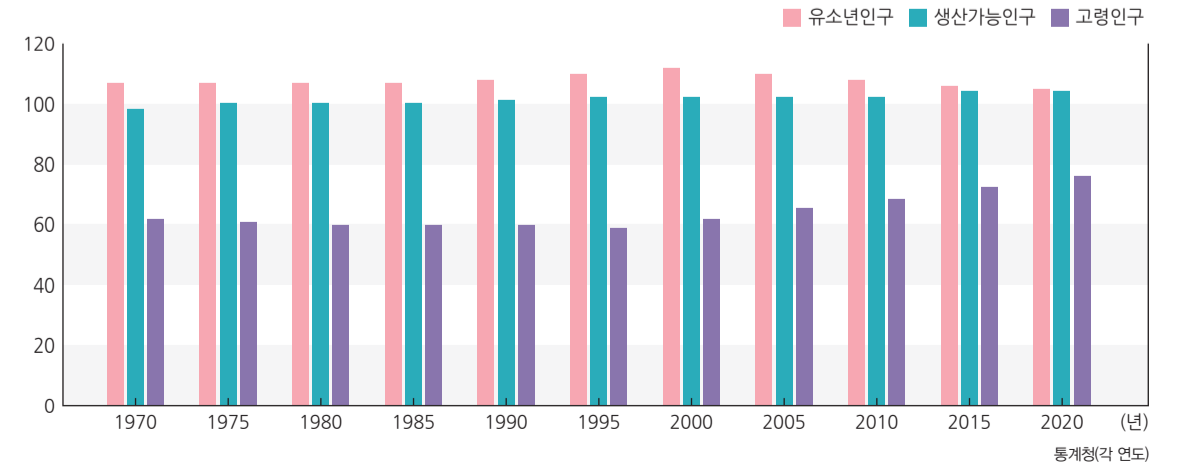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100.8	101.2	100.5	100.2	100.7	100.7	100.7	99.5	98.7	99.7	99.3
수도권	100.3	99.7	99.8	99.6	101.0	101.4	101.3	99.7	98.5	99.0	98.2
서울	100.0	99.2	99.3	99.0	100.7	100.9	100.7	98.2	96.3	96.3	94.3
경기	100.8	100.7	100.6	101.0	101.4	102.0	101.7	100.8	100.1	100.9	100.8
인천	-	-	-	99.7	101.3	102.0	101.8	100.6	99.9	100.5	99.9
강원권	104.5	105.4	104.5	104.3	103.1	102.1	101.1	100.8	100.9	102.4	101.7
충청권	102.7	103.9	102.5	102.1	102.0	101.2	101.2	100.9	100.6	102.0	102.5
충북	103.6	104.5	103.6	103.3	100.6	100.5	100.8	100.9	100.2	101.5	103.0
충남	102.2	103.5	102.0	101.5	102.9	101.1	101.0	101.2	101.5	103.1	104.0
대전	-	-	-	-	102.1	102.2	101.9	100.4	100.0	101.0	100.3
세종	-	-	-	-	-	-	-	-	-	101.3	100.2
호남권	100.6	102.2	101.0	100.9	100.7	98.5	98.5	97.0	96.6	99.3	99.6
전북	99.9	101.4	100.3	100.0	99.1	98.3	98.3	96.7	96.6	99.4	99.2
전남	101.0	102.8	101.4	101.4	102.1	98.1	98.1	96.2	95.8	99.5	100.9
광주	-	-	-	-	100.6	99.4	99.3	98.4	97.6	98.9	98.4
영남권	100.2	100.6	99.9	99.4	99.6	100.3	100.4	99.7	99.0	100.0	99.4
경북	100.4	101.5	100.5	101.0	100.0	99.6	99.9	99.3	99.0	100.4	101.4
대구	-	-	-	98.1	99.8	101.5	101.1	99.9	98.1	98.8	97.3
경남	99.6	100.3	100.1	100.7	100.6	101.2	100.4	100.1	100.4	101.5	101.4
부산	100.6	99.3	98.8	97.6	98.2	99.3	99.4	97.7	96.3	96.9	95.5
울산	-	-	-	-	-	-	105.9	106.1	105.8	107.0	105.9
제주도	92.1	93.9	95.8	96.2	97.7	97.2	98.3	98.8	98.0	100.4	100.6

통계청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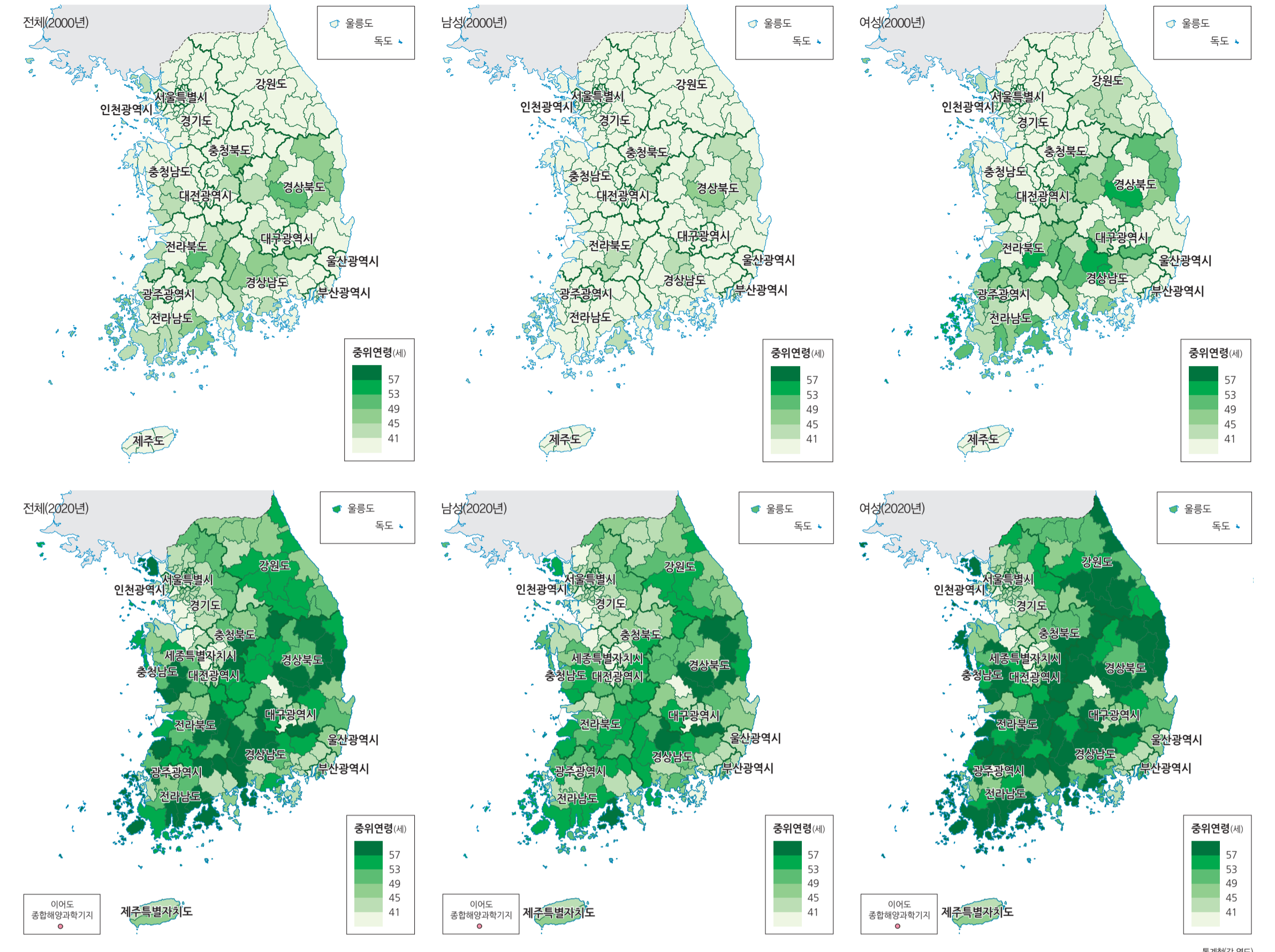
5세 연령별 남초와 여초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의 성비



중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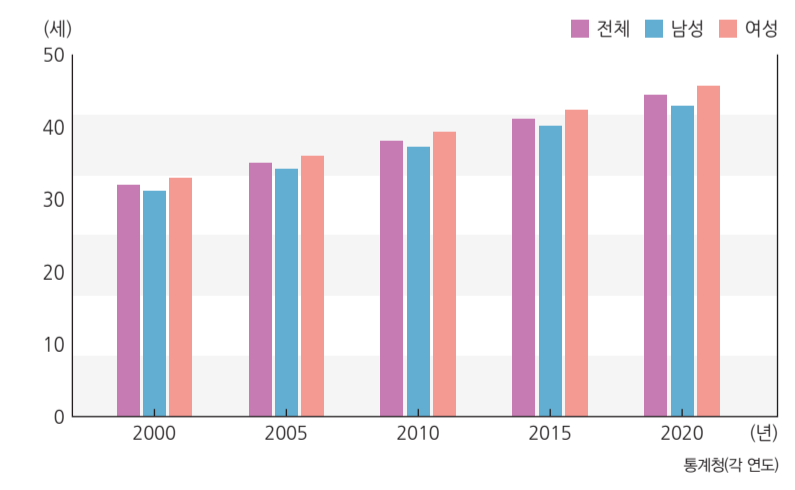
령층에서는 대체로 남성 인구가 더 많은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생산 활동 기준 성비의 연령층별 특성도 다르다.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에서는 남성이 더 많아 성비가 100 이상을 상회하지만, 고령인구에서는 여초 현상이 뚜렷하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의 중위연령과 같이 내국인 인구의 중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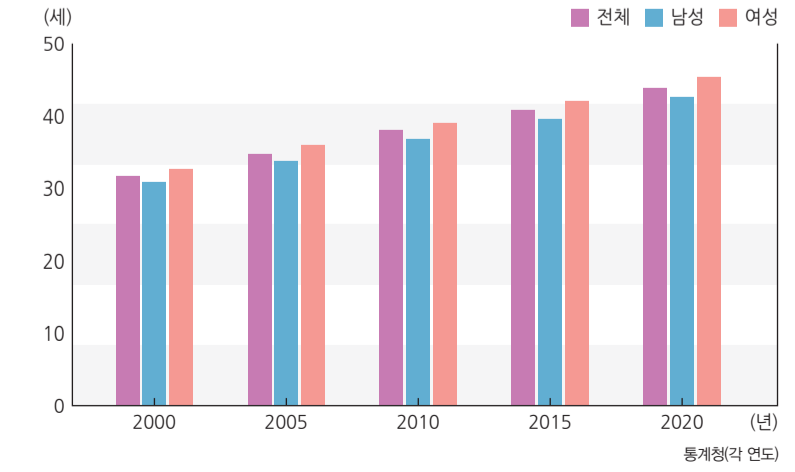
령도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간 중위연령 격차가 커지고 있다. 내국인 인구의 중위연령은 총인구의 중위연령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나이가 많은 인구의 증가 현상은 2000~2020년 사이 시·도별 중위연령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부산을 제외한 대도시와 세종시에서 중위연령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세종시 중위연령

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인데, 이는 최근들어 많은 정부 기관이 이전하면서 젊은 인구의 유입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중위연령의 변화는 시·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위연령의 증가는 한 인구 집단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나타난다.

성별 중위연령



총인구 중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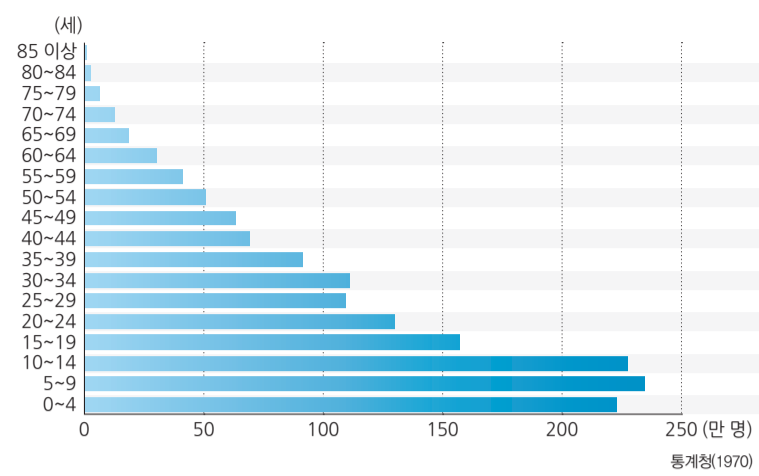
시·도 중위연령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32.0	31.0	33.1	35.0	34.0	36.0	38.1	37.0	39.3	41.2	40.0	42.4	44.3	42.9	45.6
서울	31.4	30.7	32.3	34.3	33.6	35.0	37.3	36.5	38.2	40.6	39.7	41.5	43.1	42.1	43.9
경기	31.2	30.9	31.5	33.8	33.4	34.3	36.6	35.9	37.3	39.6	38.8	40.4	42.3	41.4	43.3
인천	31.4	30.8	31.9	34.2	33.5	34.9	37.3	36.3	38.1	40.3	39.3	41.2	43.5	42.4	44.6
강원	34.2	32.7	35.7	37.5	36.0	39.2	40.8	39.1	42.6	44.2	42.5	46.0	48.1	46.5	49.8
충북	32.7	31.5	34.0	35.9	34.6	37.3	39.0	37.5	40.5	42.0	40.6	43.4	45.3	43.6	47.0
충남	34.4	32.6	36.3	36.8	35.3	38.5	39.0	37.6	40.6	41.6	40.3	43.1	45.0	43.5	46.6
대전	30.2	29.4	31.0	33.0	32.1	33.9	36.0	34.8	37.1	39.0	37.7	40.2	42.2	40.8	43.7
세종	-	-	-	-	-	-	-	-	-	36.6	36.3	37.0	38.1	37.9	38.3
전북	33.5	31.6	35.6	37.3	35.3	39.4	40.5	38.7	42.4	43.5	41.9	45.0	47.4	45.8	49.1
전남	35.9	33.4	38.5	40.2	37.8	42.9	43.6	41.3	46.3	46.0	44.1	48.0	49.4	47.5	51.4
광주	29.2	28.5	30.0	32.2	31.3	33.1	35.5	34.4	36.6	38.9	37.9	40.0	42.4	41.2	43.6
경북	34.4	32.5	36.5	37.9	35.9	40.1	41.3	39.3	43.5	44.5	42.6	46.5	48.5	46.5	50.5
대구	31.5	30.2	32.8	34.8	33.4	36.2	38.5	36.9	39.9	41.9	40.3	43.4	45.3	43.5	46.9
경남	32.9	31.5	34.4	36.0	34.6	37.5	39.0	37.5	40.6	42.1	40.5	43.7	45.9	44.2	47.5
부산	32.8	31.4	34.2	36.5	35.0	38.0	40.3	38.7	41.8	43.5	41.8	45.0	46.8	45.1	48.5
울산	30.5	29.9	31.1	33.8	32.9	34.6	37.1	35.9	38.2	39.7	38.2	41.1	43.3	41.9	44.9
제주도	31.5	30.3	32.8	34.7	33.4	35.9	38.3	37.0	39.6	41.3	40.1	42.4	43.9	42.9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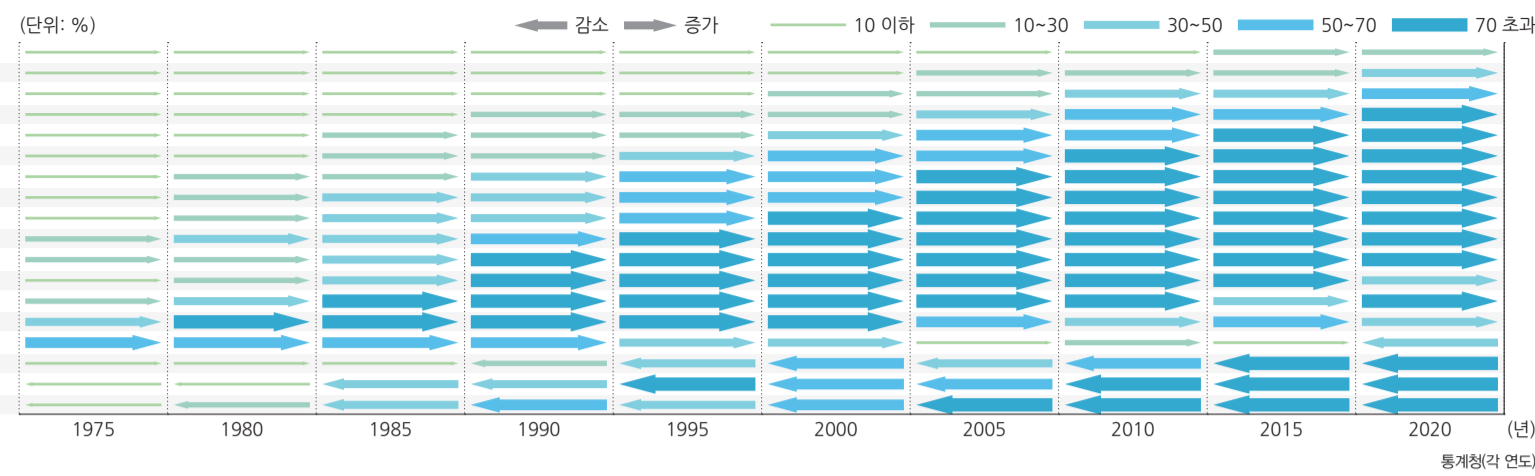
통계청 연도

인구 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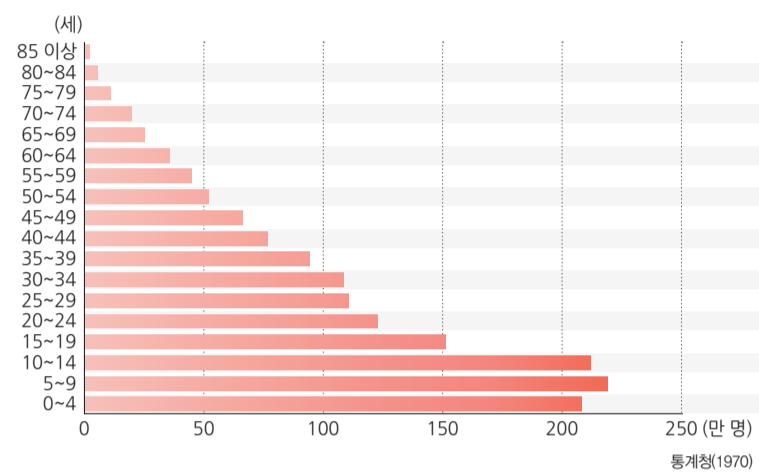
연령별 남성 인구(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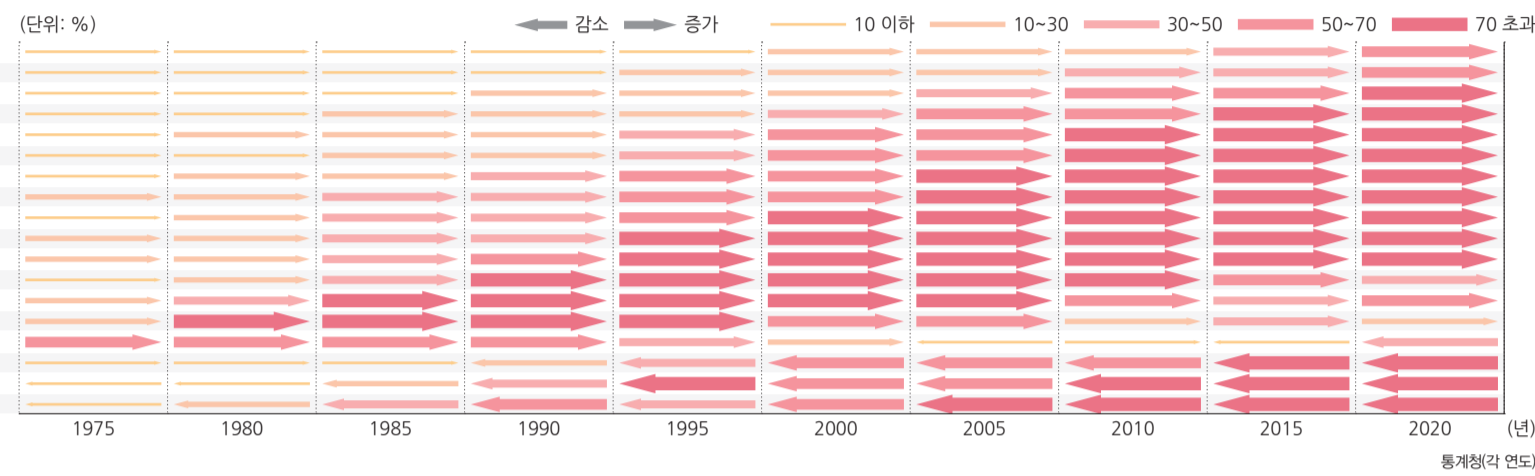
1970년 대비 연령별 남성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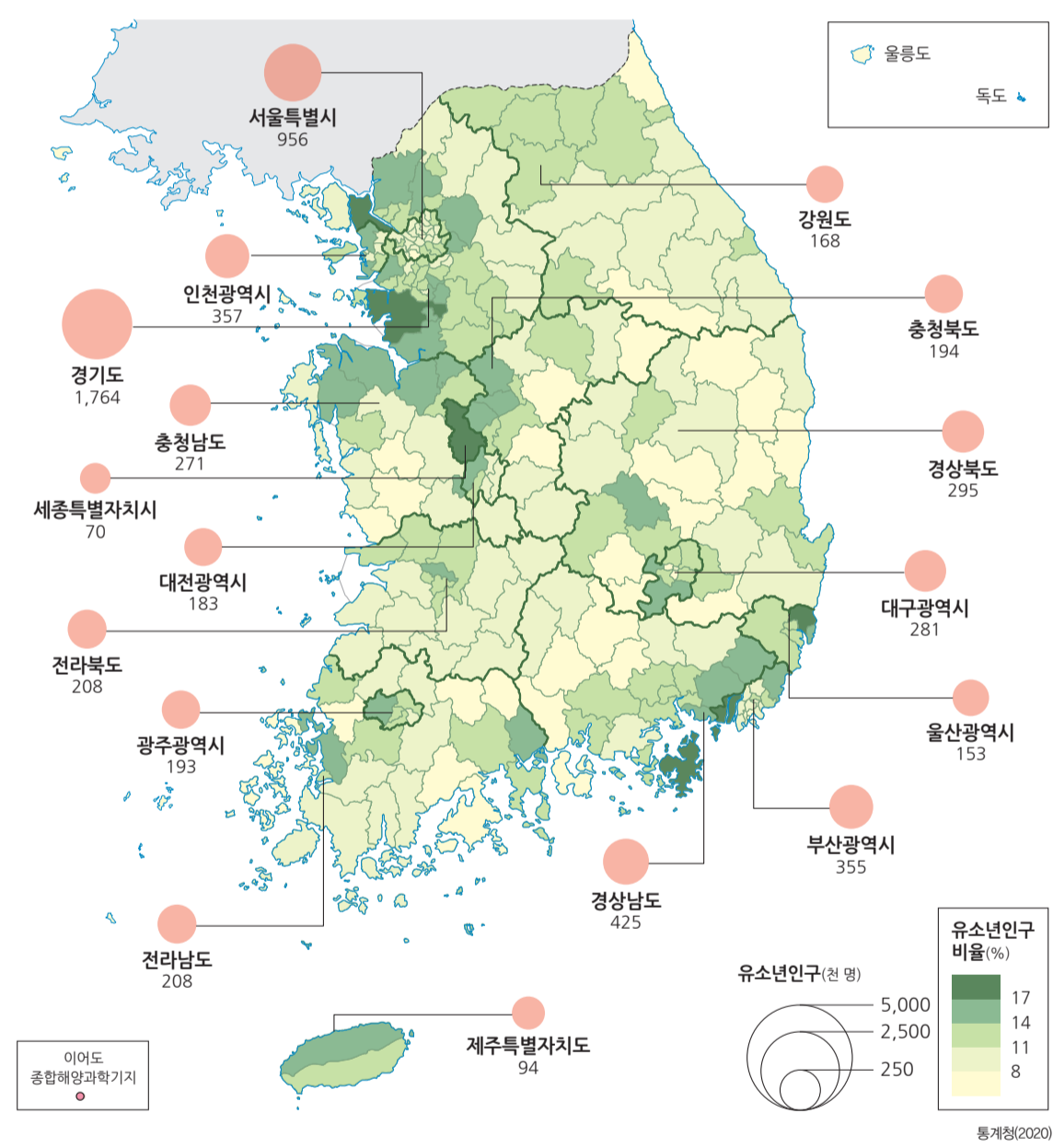
연령별 여성 인구(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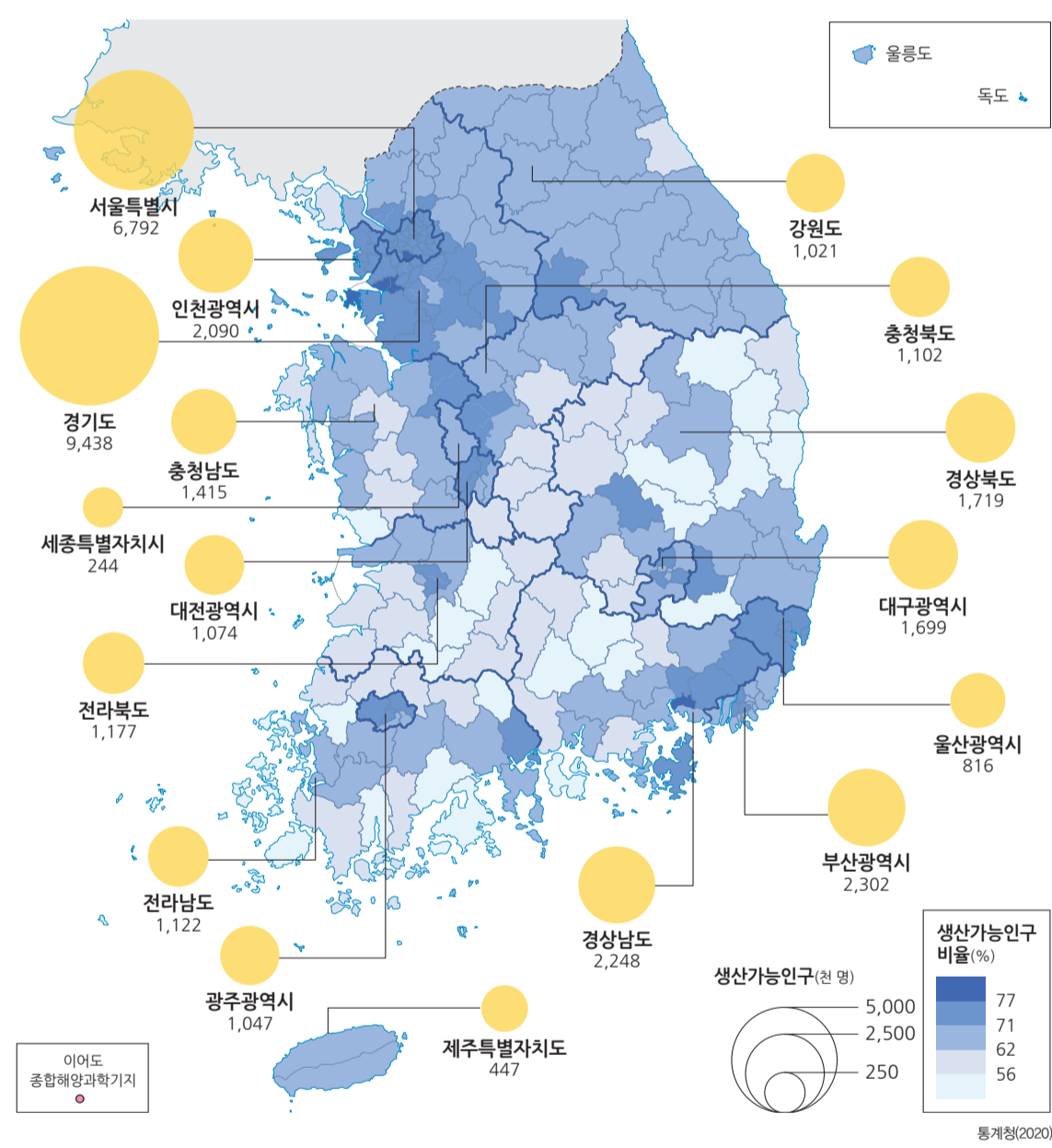
1970년 대비 연령별 여성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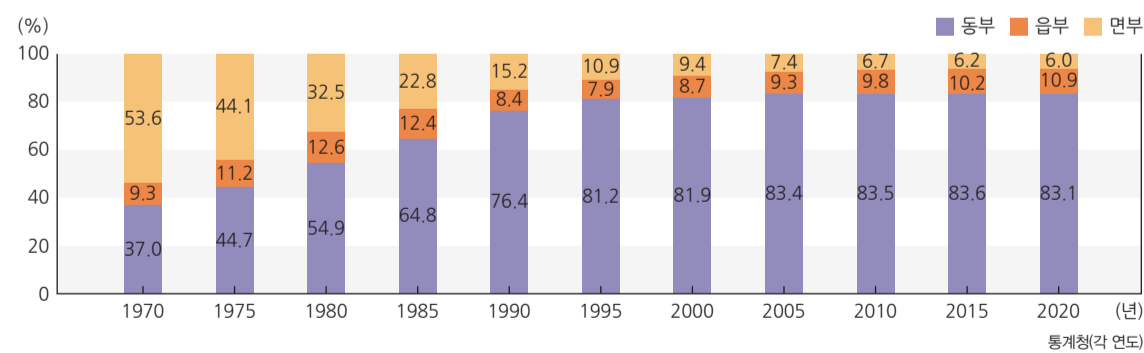
유소년인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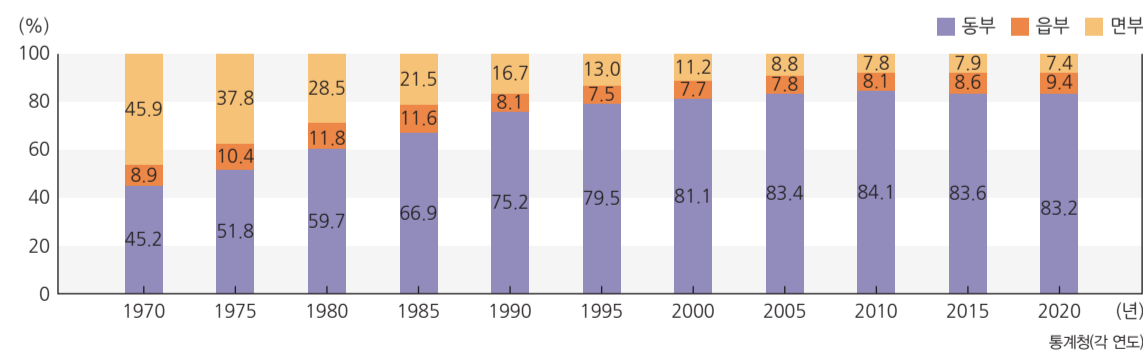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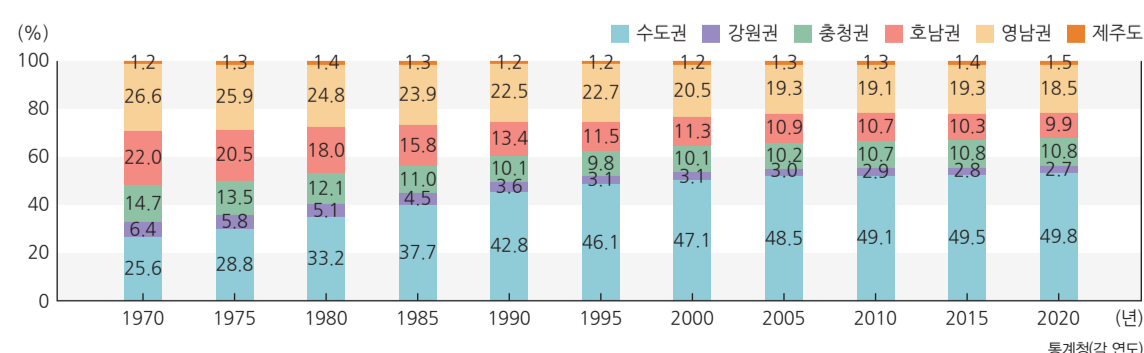
동·읍·면 유소년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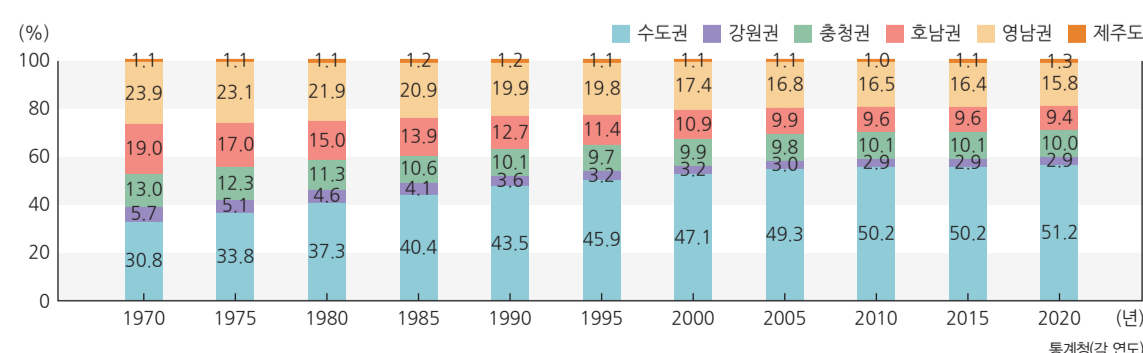
동·읍·면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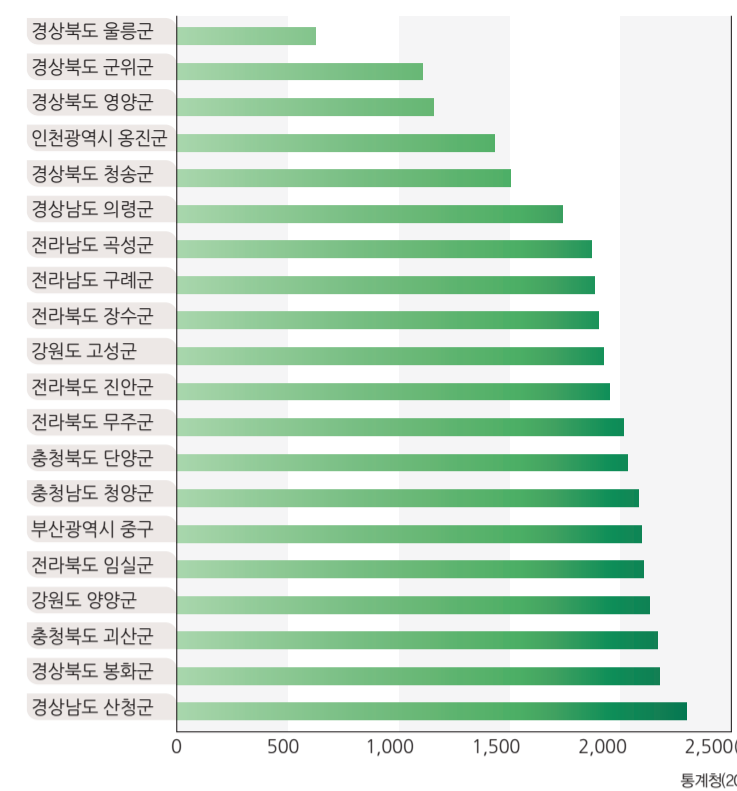
권역별 유소년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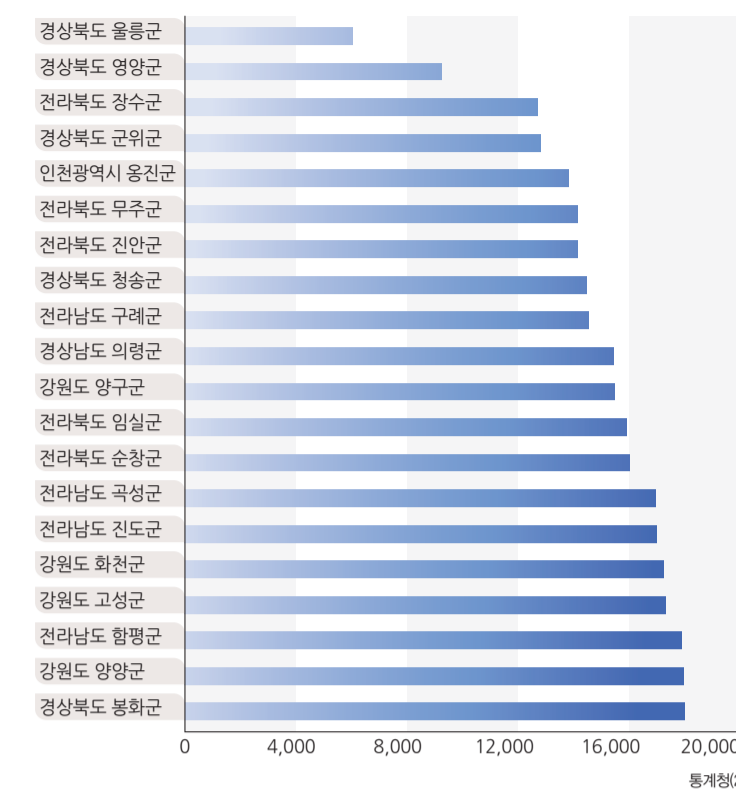
권역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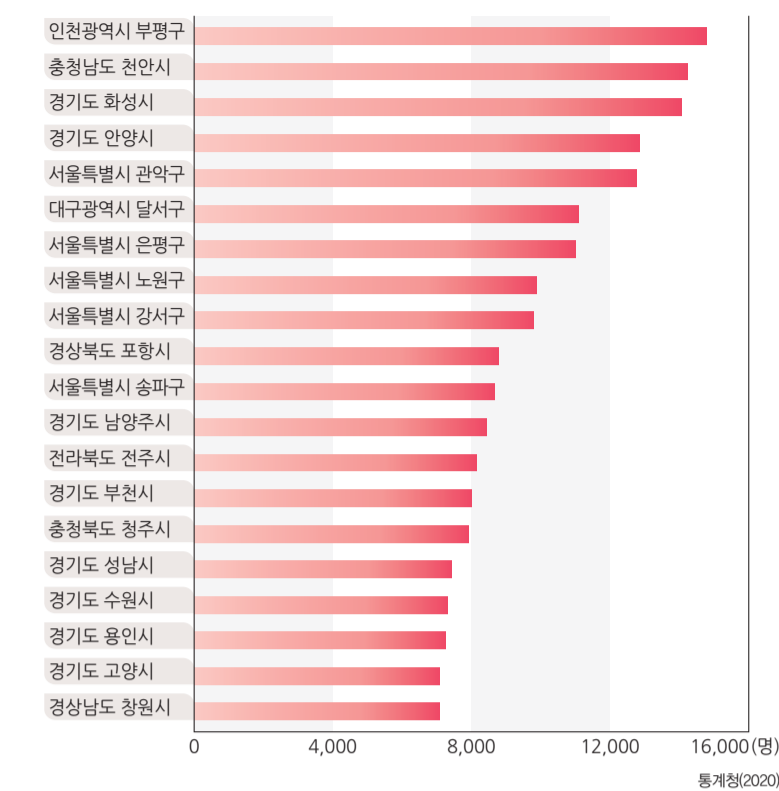
유소년인구 하위 20개 시·군·구(2020년)



생산가능인구 하위 20개 시·군·구(2020년)



고령인구 상위 20개 시·군·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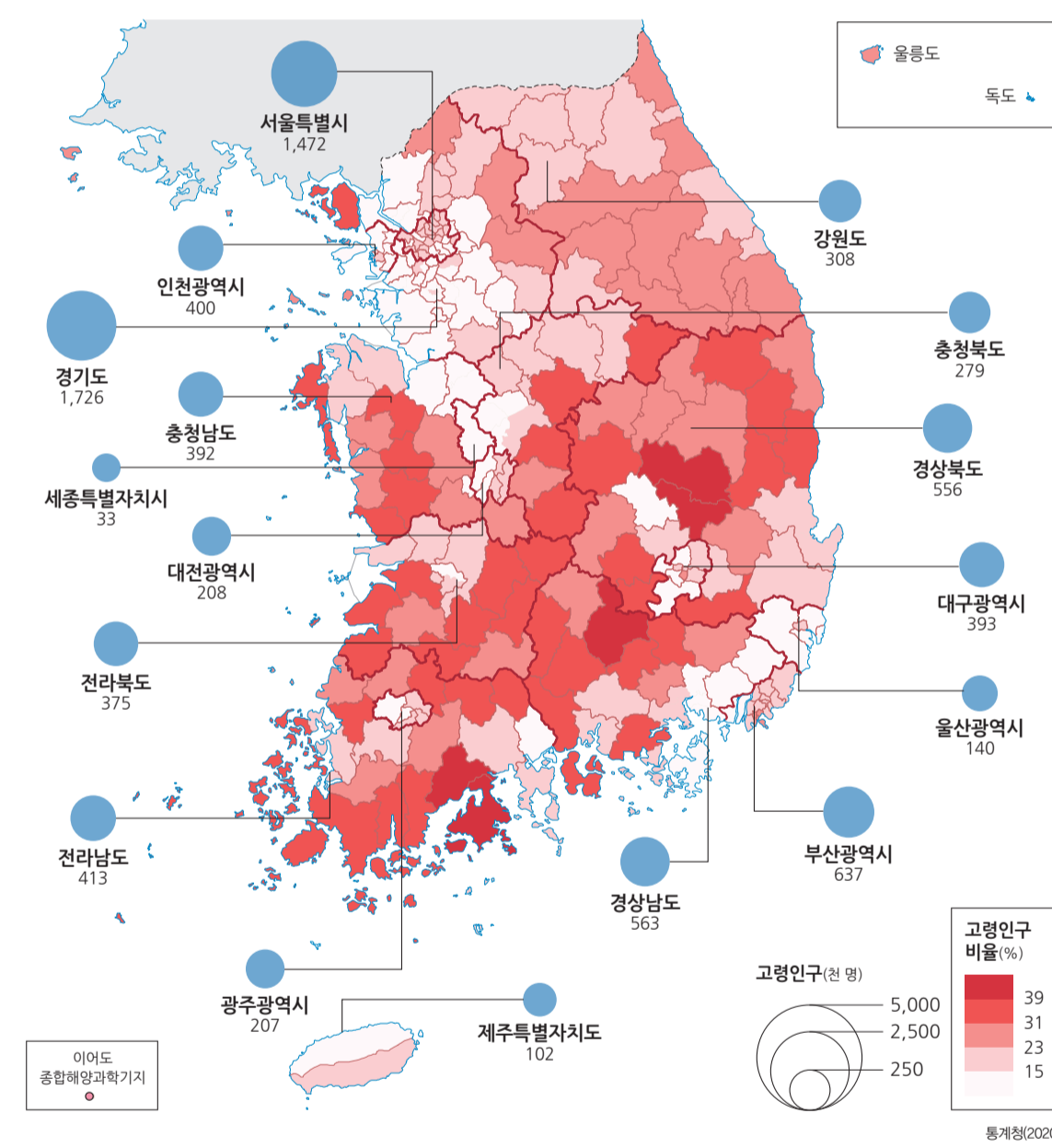


생활 활동을 기준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인구 변화는 유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1970년에 685만 명을 상회하던 유소년인구는 2020년에 이르러 317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였다(1970년 대비 54% 감소). 이와는 달리 고령인구는 2020년에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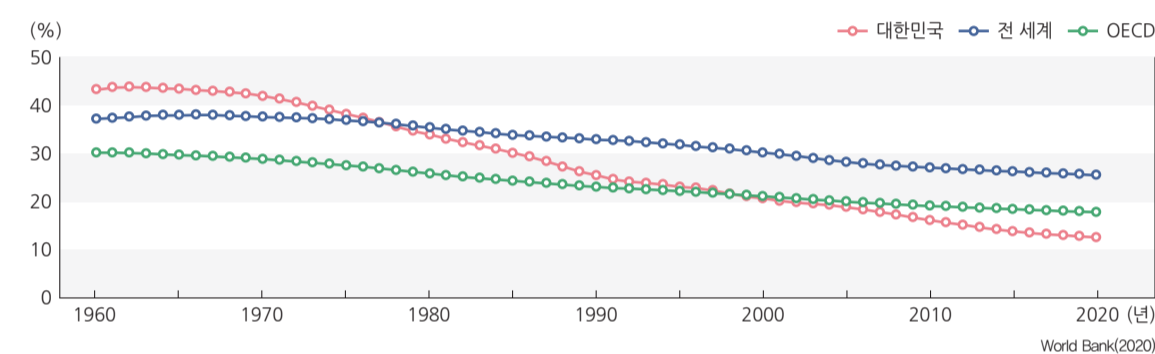
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1970년 대비 792% 증가). 5세 연령별 인구를 1970년과 비교해 보면 15세 미만 연령층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연령층 인구는

2020년에 1백만 명 이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저출산의 영향이 그만큼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1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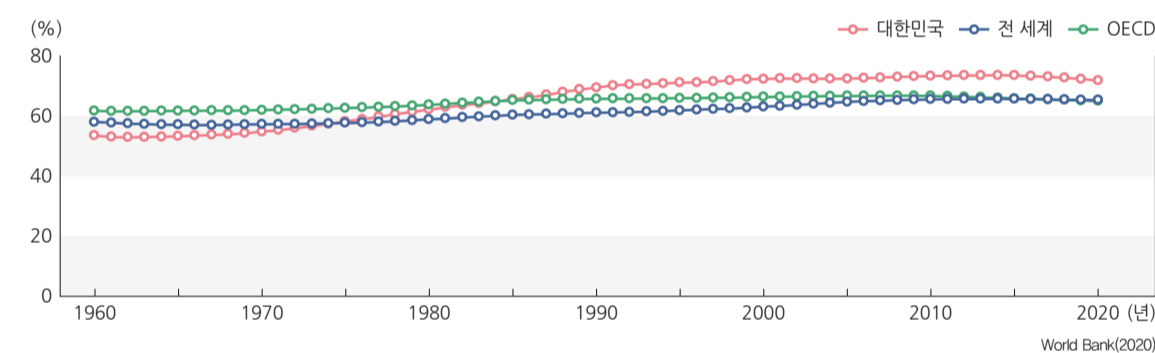
고령인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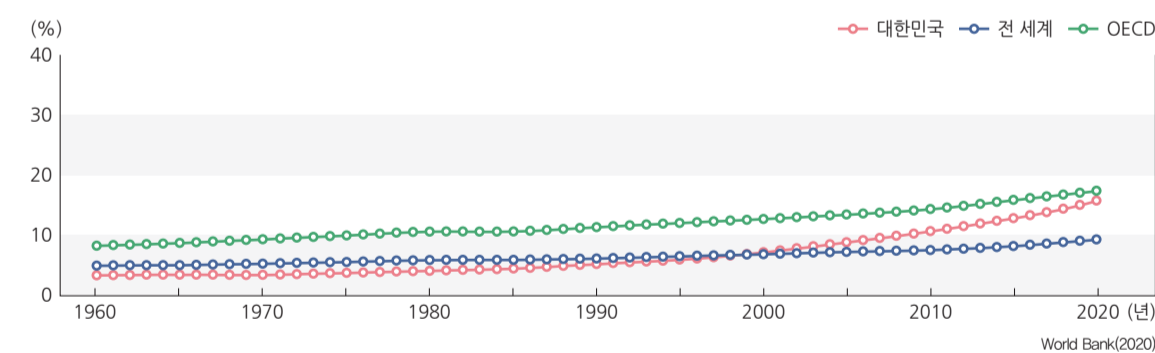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세계, OECD 유소년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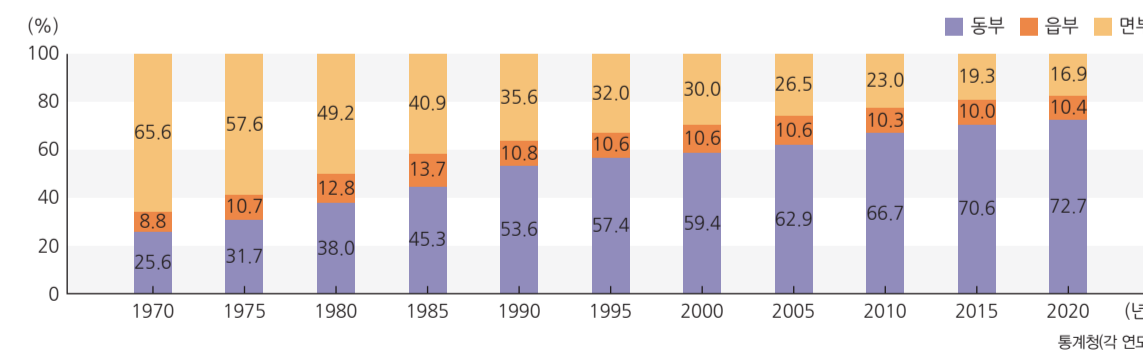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세계, OECD 생산가능인구 비율



대한민국, 전세계, OECD 고령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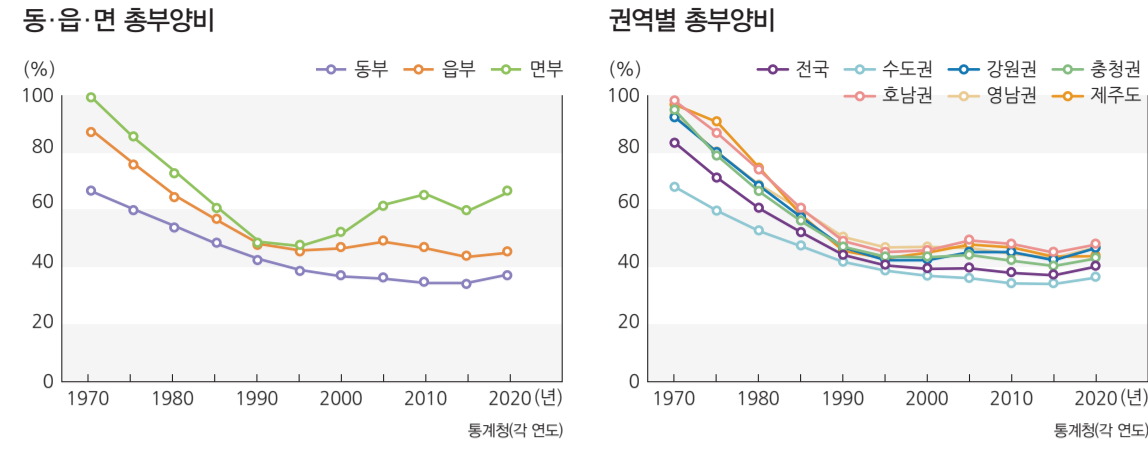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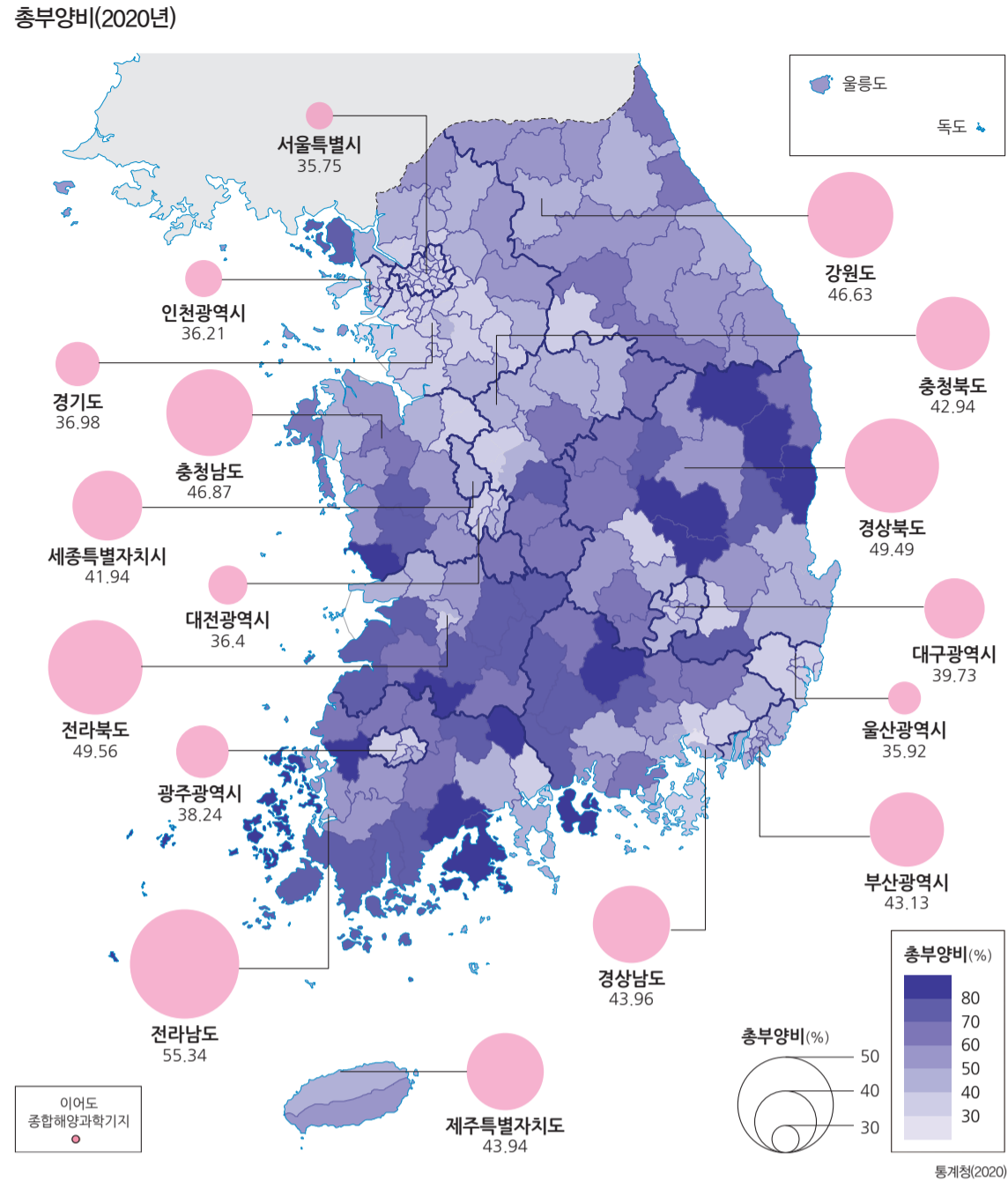


동·읍·면 고령인구 구성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모두 지난 40여 년 시·도·시·군·구 분포 지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젊은 인구의 유입에 따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소년인구가 가장 적은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 군위군, 영양군 등이며,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적은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등이다. 경남 창원시와 경기 고양시 등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인구가 거주한다.

OECD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유소년인구 비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이들보다 높았다. 그러나 그 구성비가 가파르게 낮아지면서 2020년에 이르러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졌다.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OECD나 세계 평균보다 높아졌다. 고령인구 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그 구성비는 세계 평균보다 높고 OECD 평균과 비슷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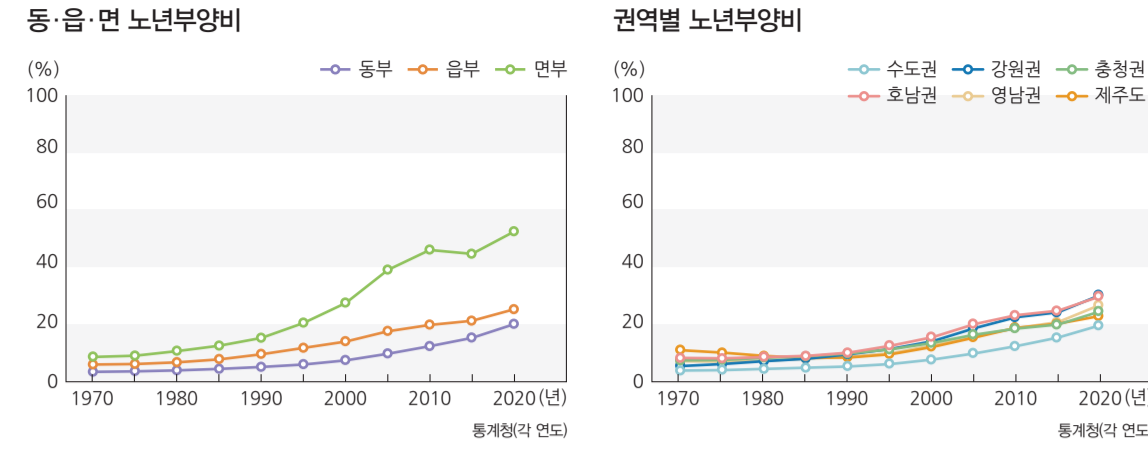
총부양비 상위와 하위 20개 시·군·구(2020년)

상위			하위		
시·도	시·군·구	총부양비	시·도	시·군·구	총부양비
전라남도	고흥군	96.3	경상남도	상산구	27.3
경상북도	의성군	93.8	경기도	단원읍	28.4
전라남도	보성군	90.0	경기도	안산시	28.7
경상남도	합천군	86.7	경기도	상록구	29.0
경상북도	영덕군	86.3	서울특별시	관악구	29.3
경상북도	군위군	85.7	경기도	영통구	30.1
경상북도	영양군	85.1	서울특별시	광진구	30.7
전라남도	신안군	82.4	인천광역시	계양구	30.8
충청남도	서천군	82.1	대전광역시	유성구	32.0
경상북도	봉화군	81.8	경기도	시흥시	32.1
전라남도	함평군	81.7	경기도	수원시	32.1
경상북도	청송군	79.9	경기도	팔달구	32.8
경상북도	청송군	79.9	경기도	관선구	32.9
경상남도	산청군	79.8	경기도	동안구	33.4
전라남도	강진군	79.4	충청북도	홍익구	33.5
전라북도	진안군	79.4	경기도	광안구	33.5
전라남도	진도군	79.1	경기도	부천시	33.5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부양비는 1968년에 88.3으로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내국인만을 고려한 총부양비도 낮아지고 있다. 내국인 인구의 총부양비는 1970~2020년 사이 약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1970년 83.2, 2020년 40.2). 총부양비 감소는 모든 권역에서 나타난다. 특히 총부양비 감소율은 충청권과 제주도에서 매우 높으며, 이들 지역의 감소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동·읍·면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부와 읍부의 총부양비가 감소하는 반면, 면부의 총부양비는 1995년 이후 증가

고 있다. 면부의 총부양비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시·군·구 분포 지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2020년 기준 총부양비는 대체로 농촌 지역인 군 지역에서 높은 수준이며, 이들 지역은 주로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넓게 분포한다. 이와는 달리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소재한 지역의 총부양비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전남과 경북의 총부양비는 다른 지역보다 높고, 대도시 지역은 대체로 낮다. 호남

권과 영남권의 시·군·구 총부양비가 대체로 높은 편이며, 전라남도 고흥군의 총부양비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96.3). 이 지역의 총부양비는 시·군·구 평균(49.4)의 약 2배에 달한다. 총부양비가 낮은 지역은 주로 광역시와 경기도에서 나타난다. 유소년부양비는 동·읍·면부 모두에서 낮아지고 있는데, 1970년에 동·읍·면부보다 높았던 면부의 유소년부양비는 2020년에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유소년부양비 감소는 생산가능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유소년인구가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모든 권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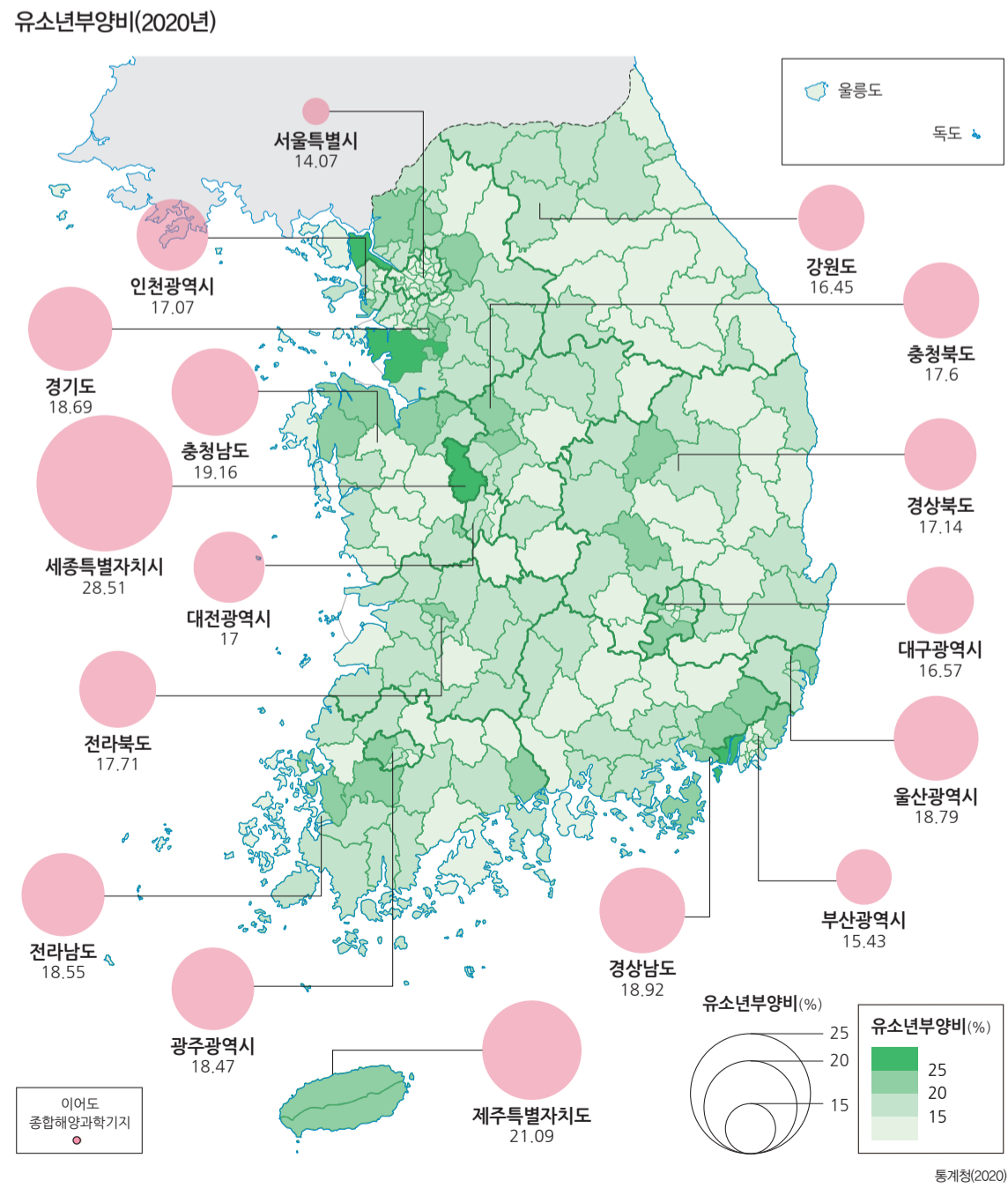
노년부양비 상위와 하위 20개 시·군·구(2020년)

상위			하위		
시·도	시·군·구	노년부양비	시·도	시·군·구	노년부양비
전라남도	고흥군	82.3	경기도	영통구	9.5
경상북도	의성군	82.2	경상남도	성산구	10.7
경상북도	군위군	76.1	울산광역시	북구	10.9
전라남도	보성군	75.2	충청남도	서북구	11.5
경상남도	합천군	74.8	경기도	화성시	12.2
경상북도	영덕군	71.9	대전광역시	유성구	12.3
경상북도	영양군	71.3	경기도	시흥시	12.4
전라남도	신안군	70.0	경상북도	구미시	12.9
경상남도	남해군	68.6	광주광역시	광산구	13.1
경상북도	봉화군	68.4	인천광역시	연수구	13.2
경상북도	청송군	68.3	경기도	오산시	13.2
충청남도	서천군	68.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3.4
경상북도	청도군	67.9	경기도	단원읍	13.6
경상남도	마포구	67.4	경기도	안산시	14.2
전라남도	함평군	67.3	충청남도	천안시	14.6
경상남도	산청군	67.1	인천광역시	서구	14.6
전라남도	구례군	65.8	경기도	수원시	14.7
전라북도	홍익구	64.4	경기도	상록구	14.7
전라북도	진안군	64.1	충청북도	홍익구	14.8
충청남도	청양군	63.9	경기도	관선구	14.9

이러한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 2020년 현재 세종시의 유소년부양비(28.5)는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시·도 평균의 약 1.5배 수준이다. 한편, 서울의 유소년부양비(14.1)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 유소년부양비와 달리 노년부양비는 동·읍·면부 모두에서 높아지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면부의 노년부양비는 동·읍·면부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면부의 노년부양비는 동부의 약 2배 이상을 상회한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권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까지 강원권과 호남권의 노년부양비가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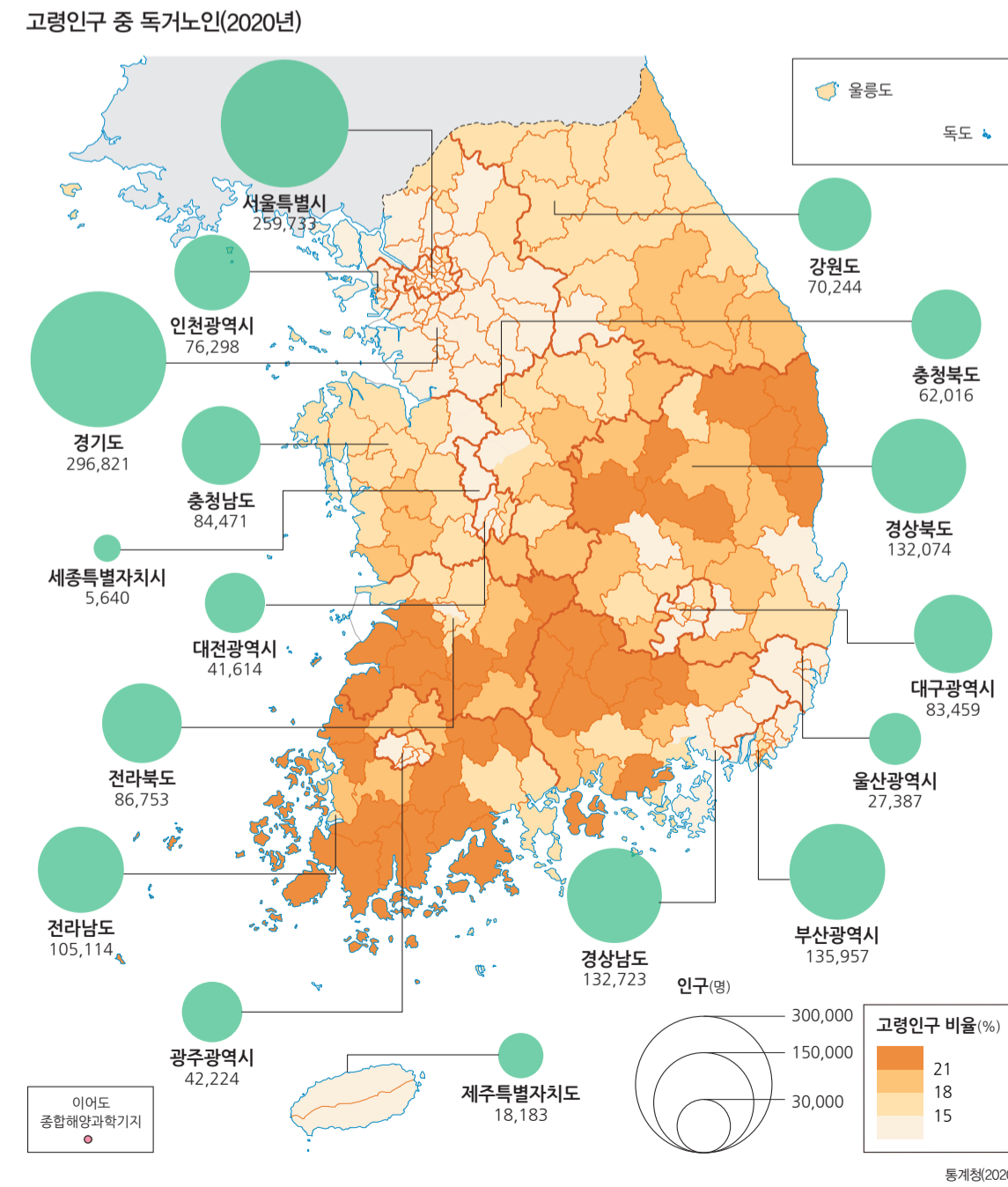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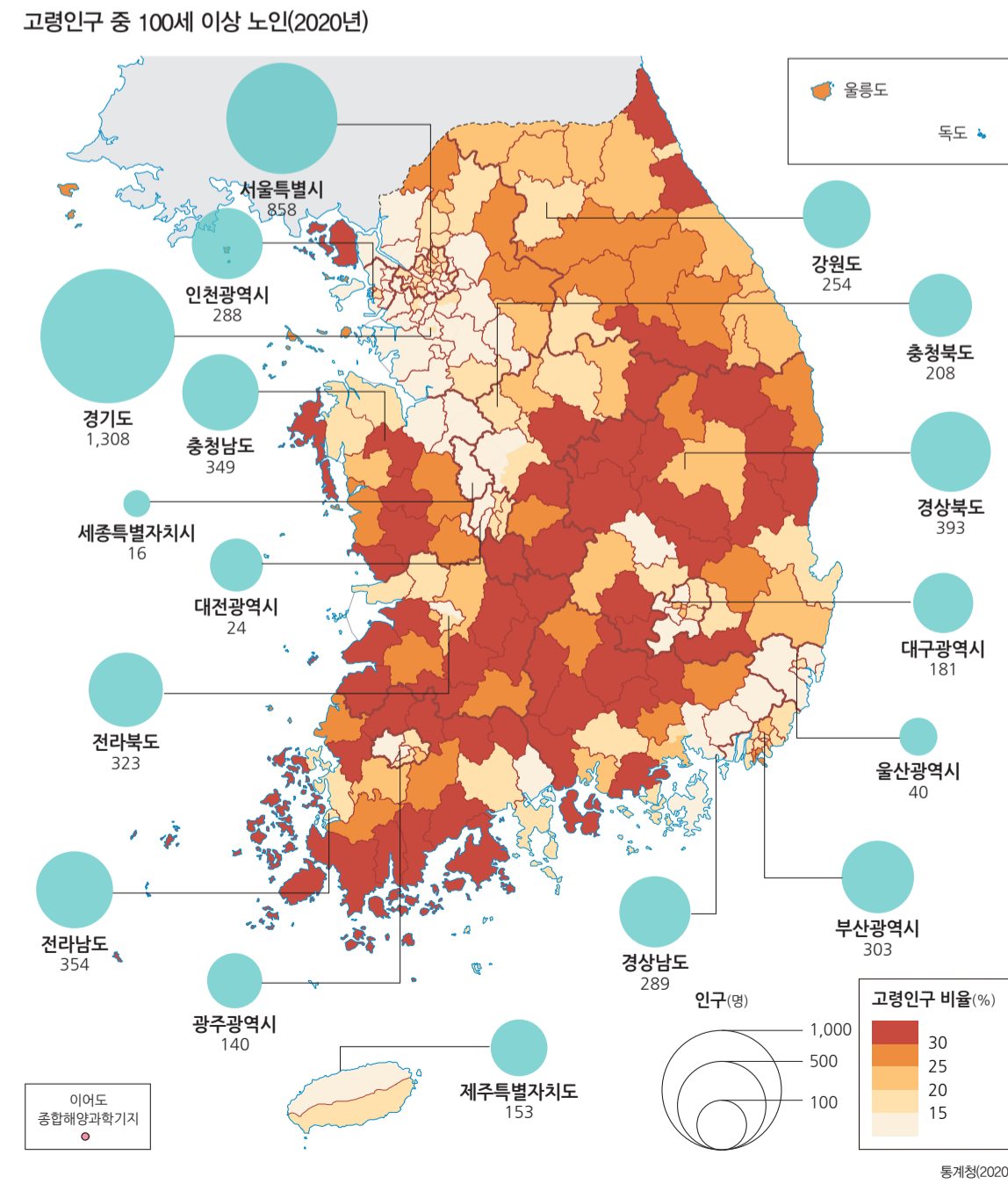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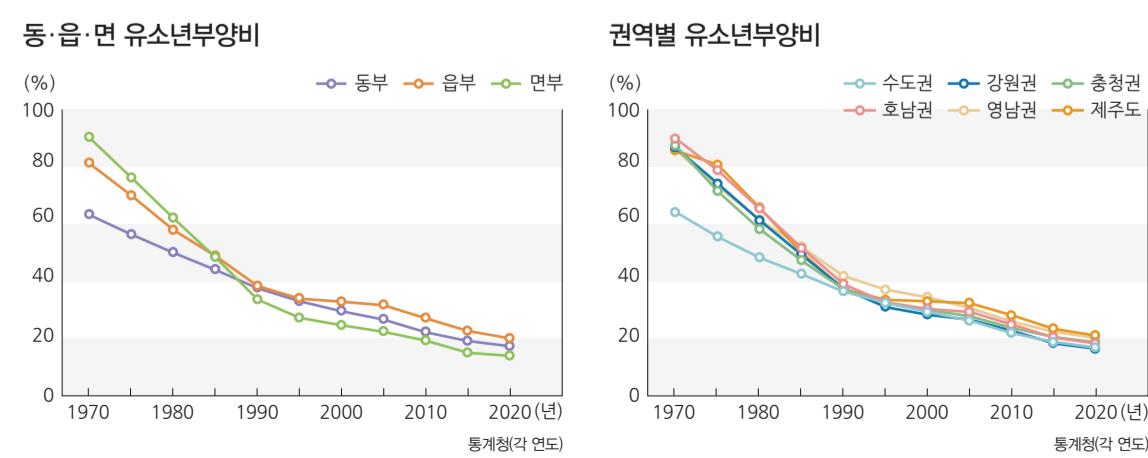
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도 평균(24.2)과 비교할 때 노년부양비는 대도시에서 대체로 낮지만, 그의 지역에서는 높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및 강원은 시·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년부양비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높은 편인데, 이는 시·군·구 분포 지도에서 잘 나타난다.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등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구에서 이 부양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와 같이 최근 들어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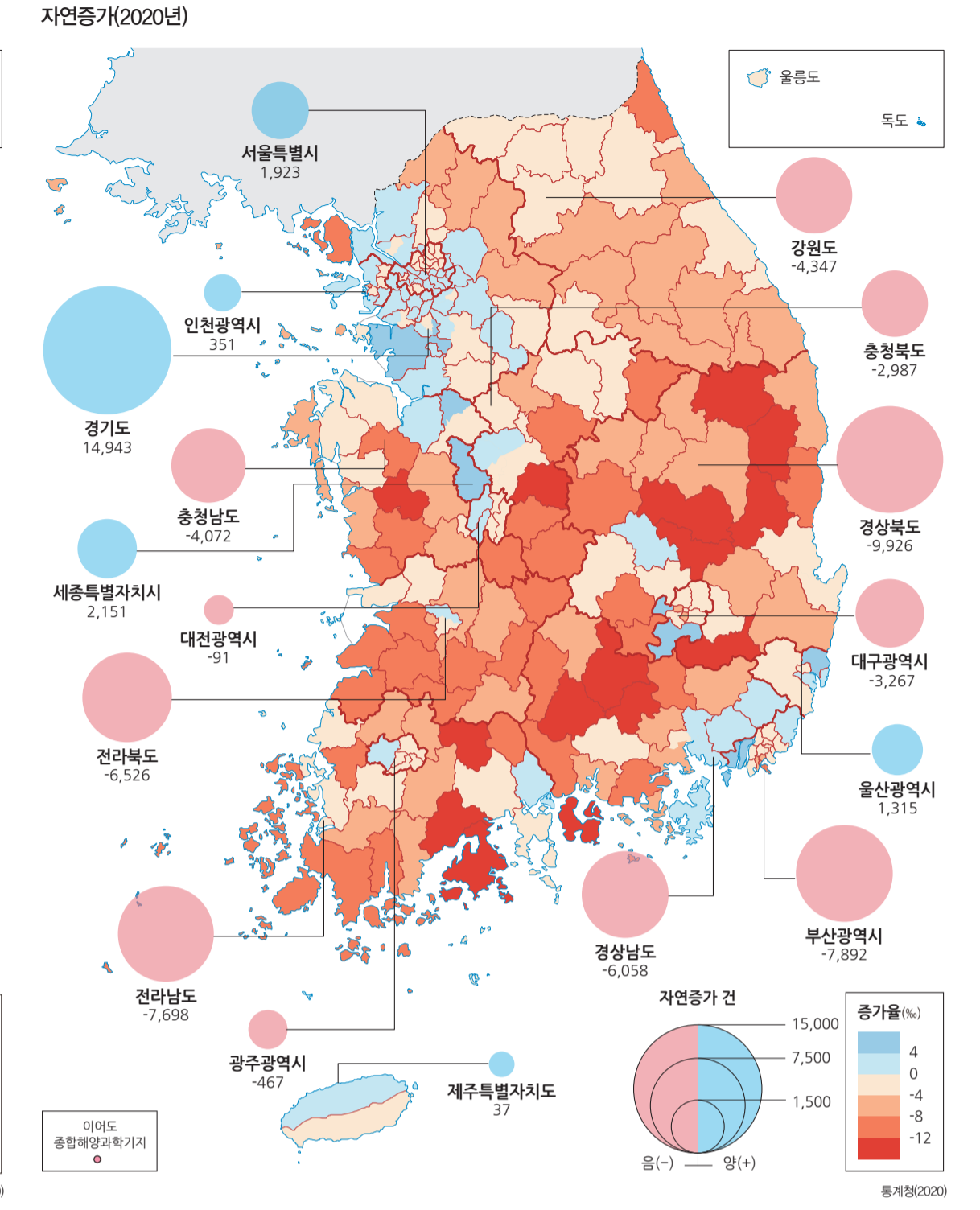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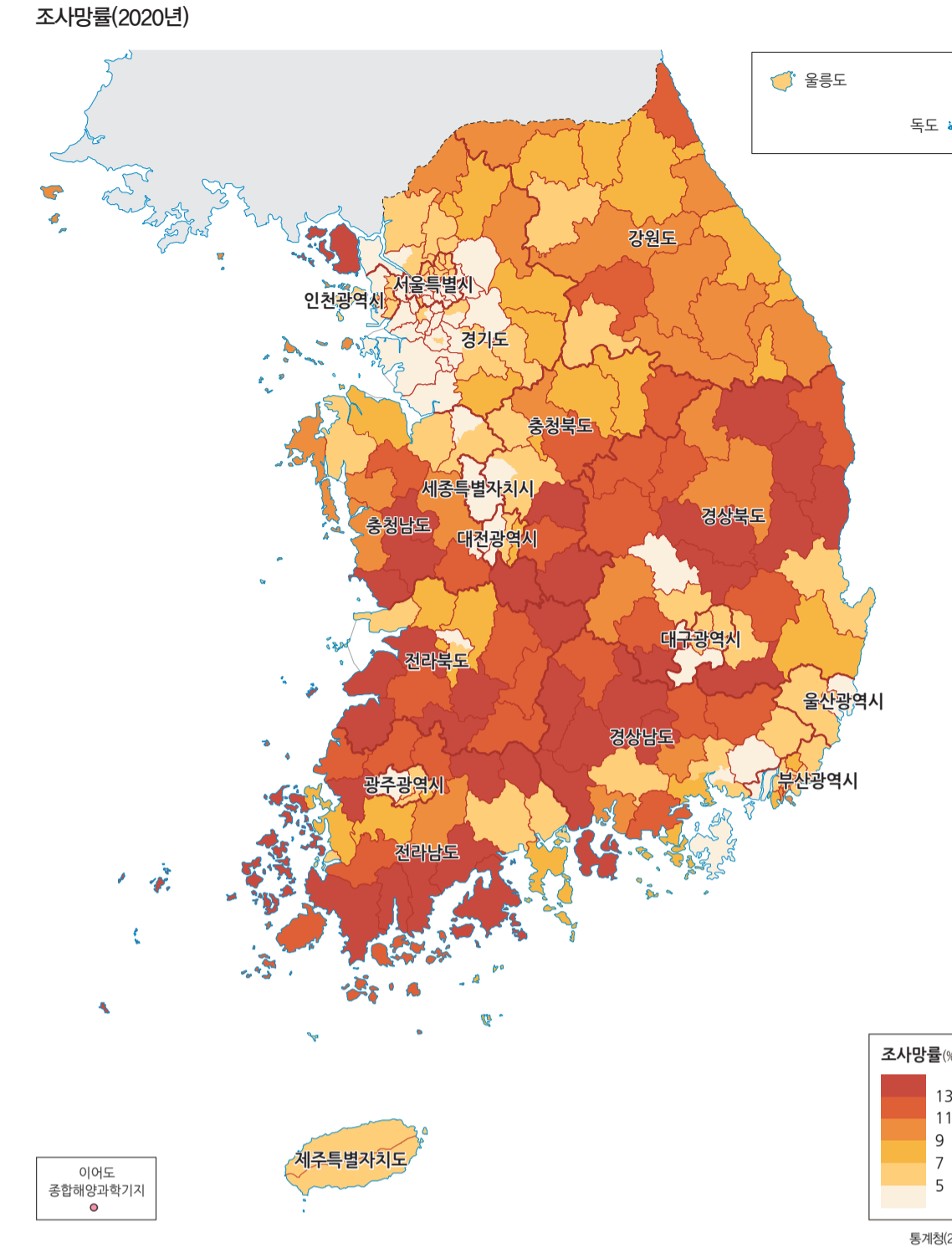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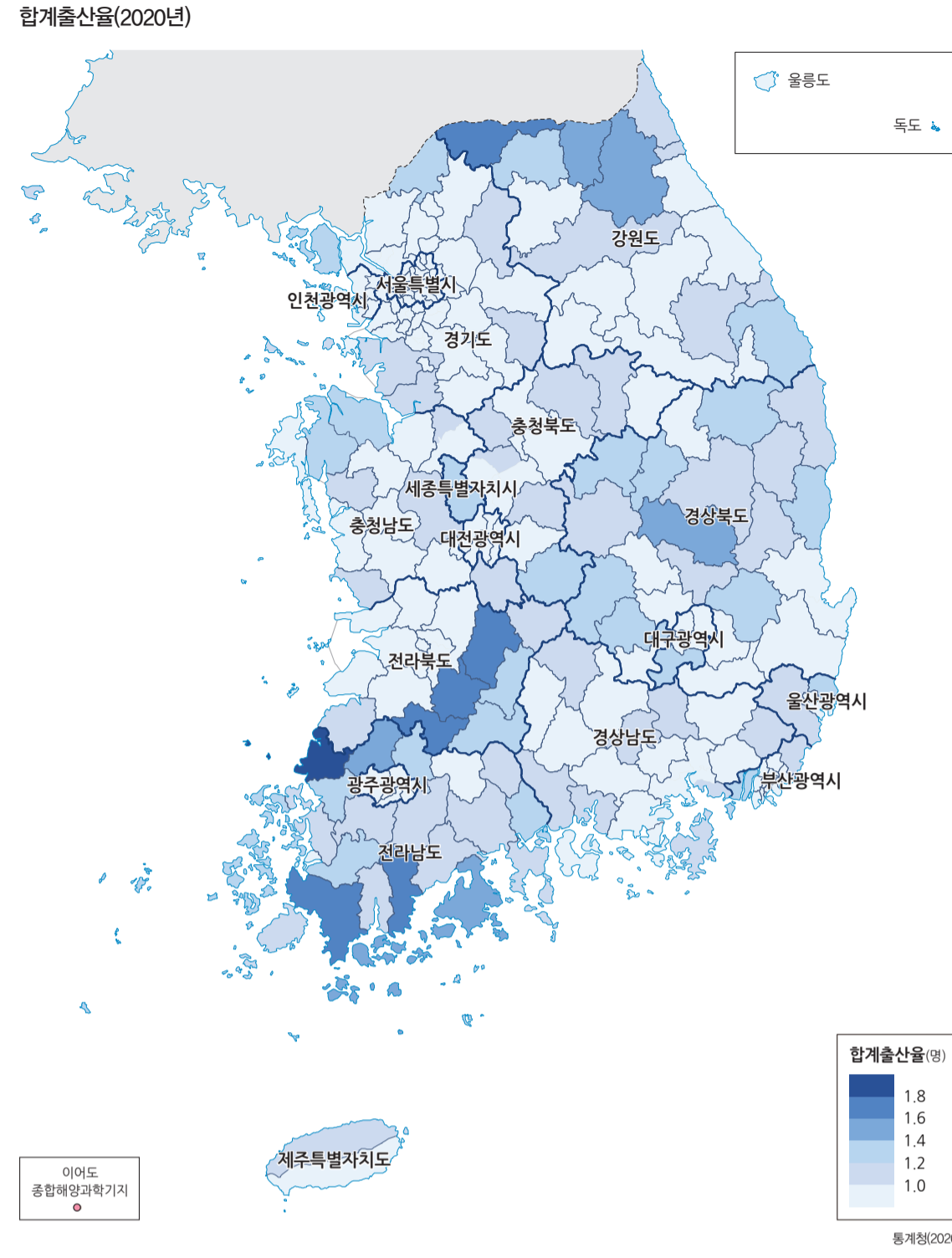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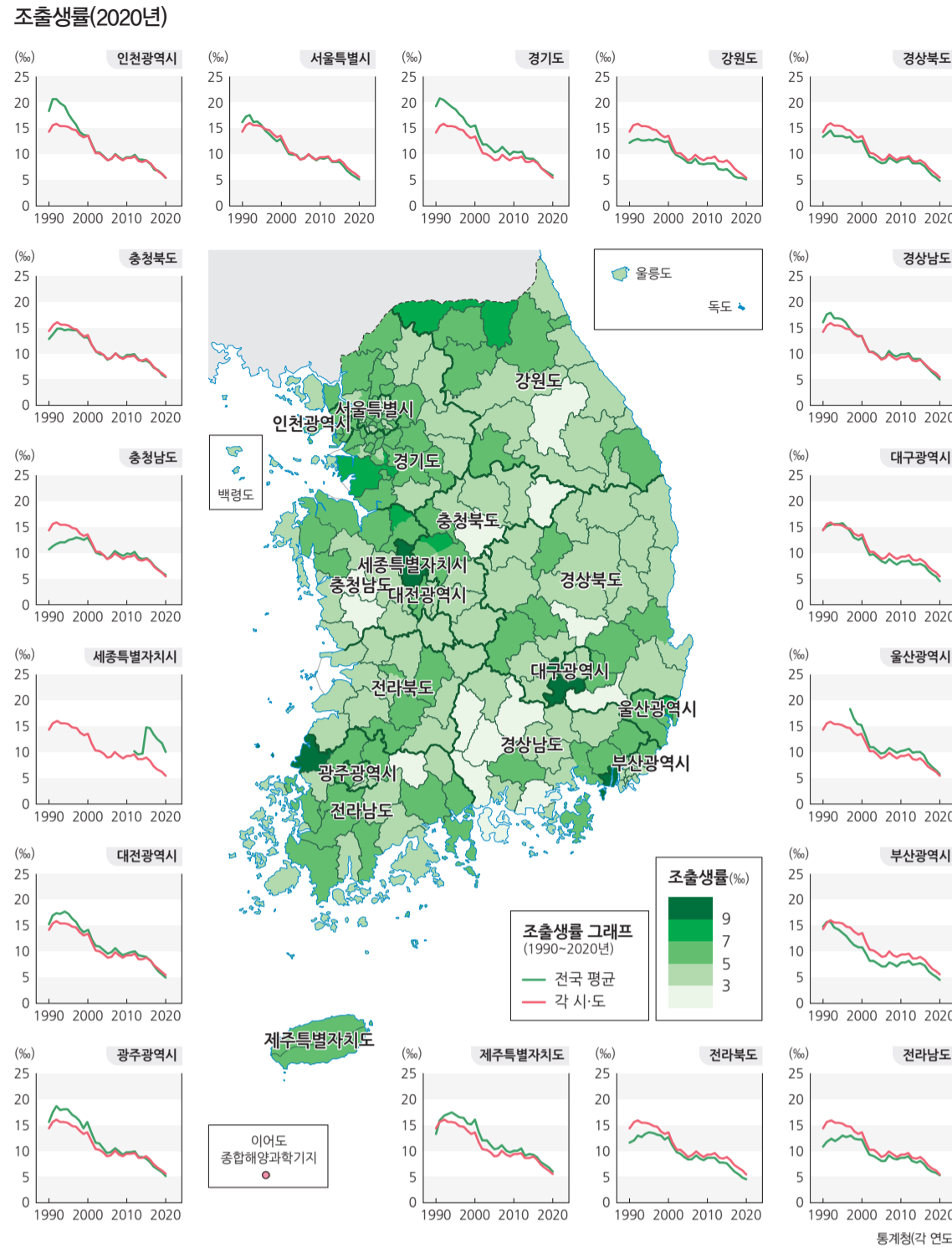
는 노년부양비가 낮은 편이다. 의학 기술 발달과 의료 복지 확대 등에 따라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 중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의 시·군·구 분포 지도를 살펴보면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서울,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많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 독거 노인도 증가하고 있는데, 100세 이상 인구 비율과 같이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에서 그 비율도 높다.



유소년부양비 상위와 하위 20개 시·군·구(2020년)

상위 시·군·구			하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유소년부양비	시·도	시·군·구	유소년부양비
부산광역시	강서구	30.0	부산광역시	중구	7.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28.5	서울특별시	관악구	9.2
경기도	화성시	26.1	경상북도	군위군	9.6
경기도	김포시	25.1	충청북도	괴산군	9.7
부산광역시	기장군	24.8	대구광역시	서구	10.4
경상남도	거제시	24.1	부산광역시	남구	10.7
울산광역시	북구	23.8	서울특별시	중구	10.8
충청남도	계룡시	23.8	부산광역시	동구	10.9
경상남도	진해구	23.5	경상북도	청도군	11.1
대구광역시	달성군	23.3	서울특별시	금천구	11.3
충청남도	아산시	23.0	부산광역시	영도구	11.3
경상북도	예천군	22.8	서울특별시	종로구	11.4
경기도	수지구	22.7	인천광역시	울진군	11.5
전라남도	무안군	22.6	경상북도	의성군	11.5
충청남도	당진시	22.1	경상북도	청송군	11.6
경기도	기흥구	22.1	경상북도	울릉군	11.6
경기도	오산시	22.0	경상북도	성주군	11.8
광주광역시	광산구	22.0	경상남도	합천군	11.9
충청북도	청원구	21.9	서울특별시	광진구	11.9
경기도	파주시	21.7	서울특별시	강북구	12.0





인구 동태는 1년 동안 한 지역에서 발생한 출생·사망·결혼·이혼과 같은 인구의 변동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특히 출생과 사망은 특정 지역의 자연적인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한 인구 집단의 출산력 수준과 사망률 수준은 각각 조출생률과 조사망률로 나타낸다.

우리나라 출산력은 최근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20년 현재 조출생률이 5.3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30년 동안 시·도의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으며, 1990년 대비 2020년 조출생률은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94%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는 출생자 수 변화에도 반영되는데, 1990~2020년 사이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58% 이상 감소하였다. 전국보다 높은 출생자 수 감소율은 영남권(65.8%)과 강원권(68.8%)에서 나타났으며,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73.1%), 서울(71.9%), 경남(70.6%), 대구(66.3%), 전북(65.6%), 경북(64.6%), 전남(63.9%)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군 지역에서 출산력 수준이 낮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인구소멸고위험 지역에서 나타난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출생률은 충북 괴산이며(2.0), 충남 부여군과 충북 단양군도 각각 2.6과 2.5로서 출산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출산력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들 지역은 장차 인구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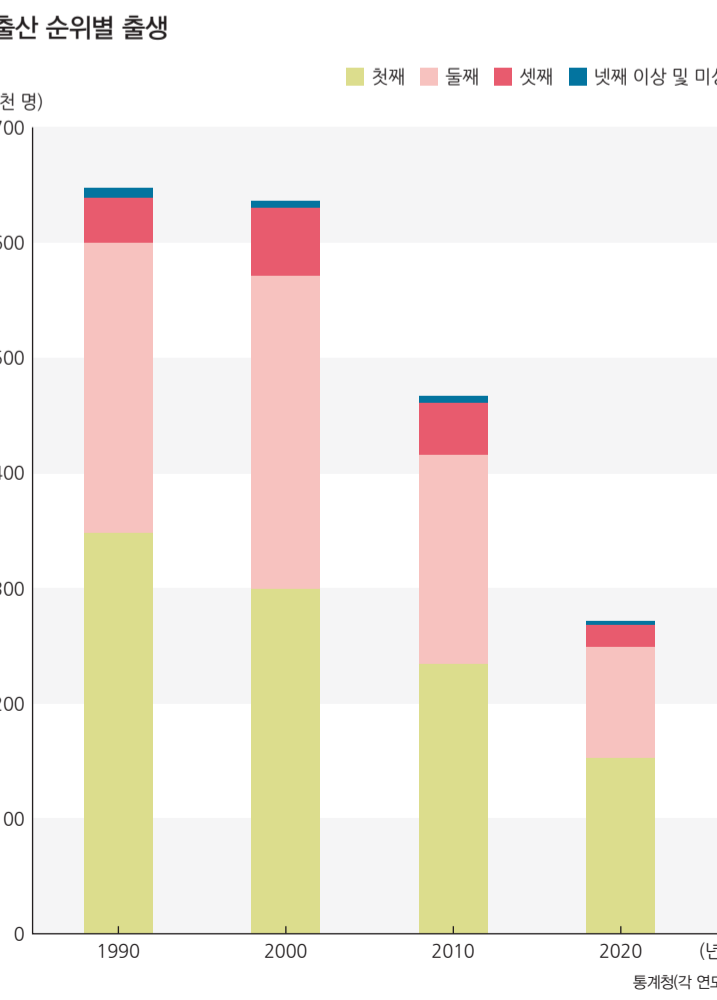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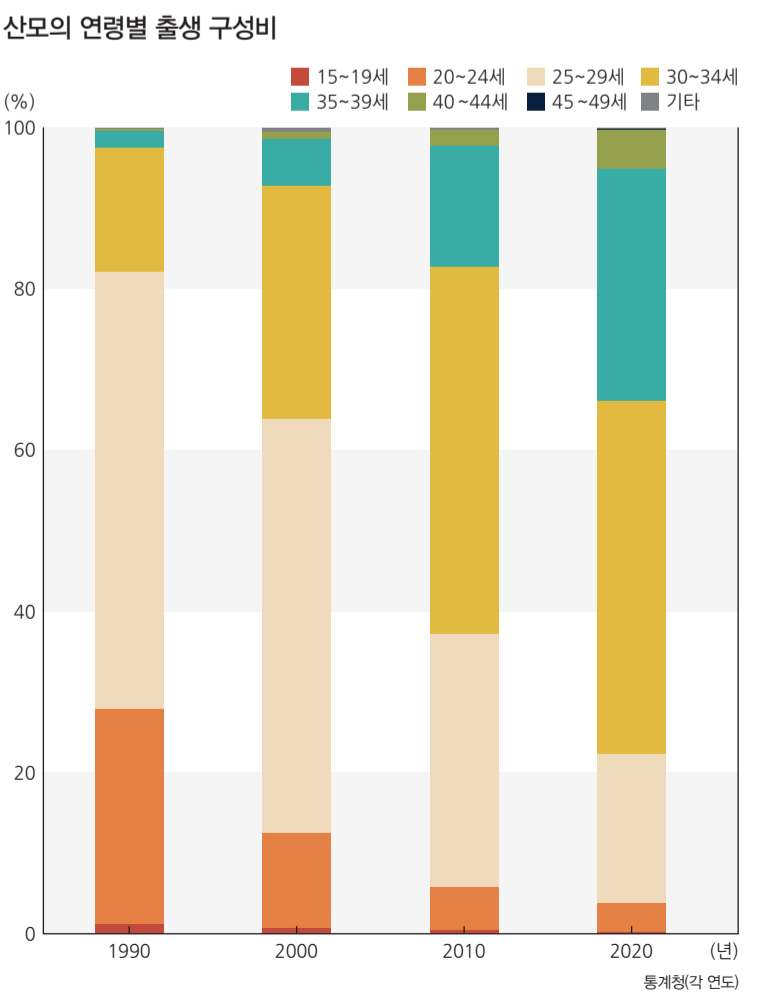
호남권의 낮은 출산력에도 불구하고 전남 영광군은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펼침으로써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10.5), 대도시의 구지역은 조출생률이 높은 편이나, 부산 중구와 대구 서구는 인구소멸고위험 지역의 출산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산력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지표인 합계출산율의 지역적 분포도 조출생률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권역별 출생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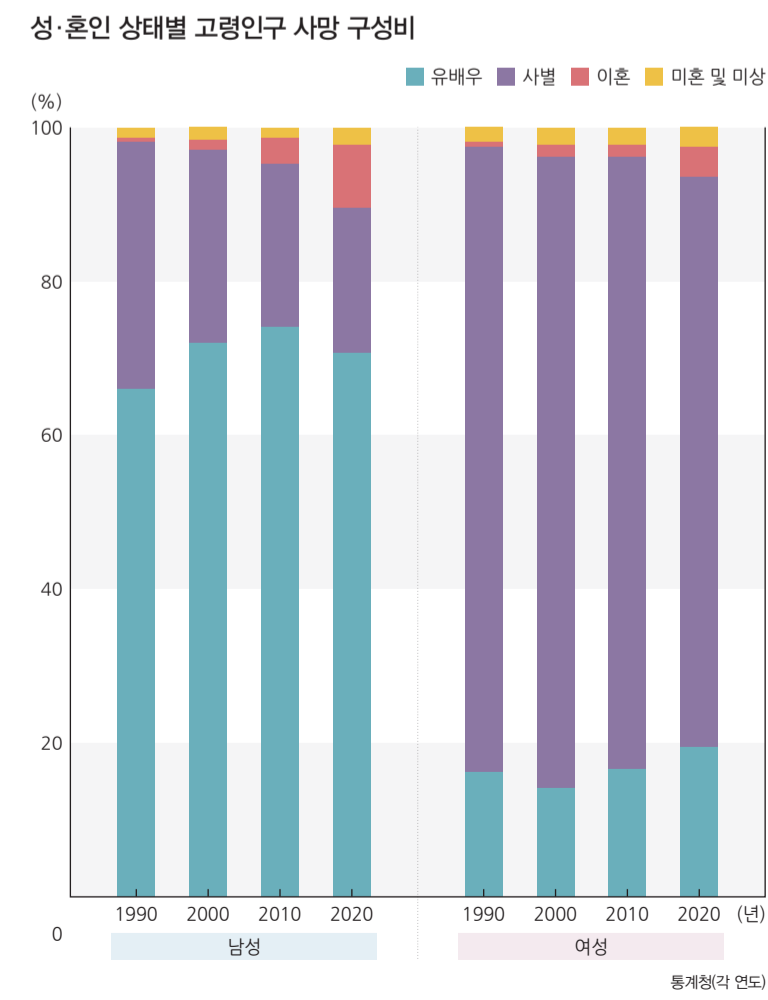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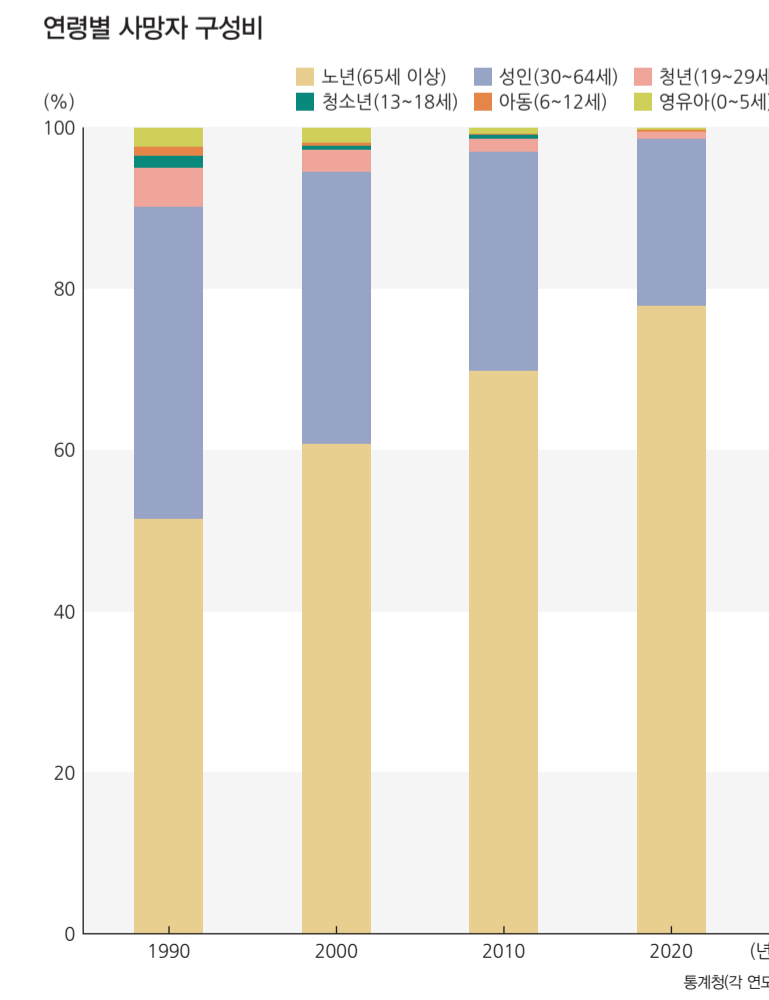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649.7	715.0	640.1	438.7	470.2	438.4	272.3
수도권	318.6	349.2	309.3	223.0	240.8	222.0	141.2
서울	168.8	166.2	133.2	90.5	93.3	83.0	47.4
경기	115.0	141.7	141.7	109.5	121.8	113.5	77.7
인천	34.7	41.2	34.4	23.0	25.8	25.5	16.0
강원권	19.0	19.5	19.5	12.7	12.5	10.9	7.8
충청권	54.4	65.6	63.9	44.6	49.2	48.6	31.5
충북	17.5	21.0	19.6	13.2	14.7	13.6	8.6
충남	21.1	23.0	24.7	17.5	20.2	18.6	12.0
대전	15.8	21.6	19.6	14.0	14.3	13.8	7.5
세종	-	-	-	-	-	2.7	3.5
호남권	68.1	78.3	72.4	44.9	46.7	41.6	25.2
전북	23.8	27.2	25.2	15.7	16.1	14.1	8.2
전남	27.0	28.2	26.0	15.8	16.7	15.1	9.7
광주	17.4	22.9	21.1	13.3	14.0	12.4	7.3
영남권	182.8	193.7	166.4	107.8	115.3	109.7	62.6
경북	36.4	37.2	35.2	22.3	23.7	22.3	12.9
대구	33.3	38.8	32.5	20.8	20.6	19.4	11.2
경남	57.2	65.2	41.7	28.5	32.2	29.5	16.8
부산	56.0	52.6	41.2	25.7	27.4	26.6	15.1
울산	-	-	15.8	10.5	11.4	11.7	6.6
제주도	6.7	8.7	8.6	5.7	5.7	5.6	4.0

통계청(각 연도)



(4.8), 대전(5.2), 인천(5.4)과 광주(5.4)이다. 그 외 시·도의 경우 전남(9.4), 경북(8.6), 전북(8.2), 강원(8.0), 충남(7.6), 충북(7.3), 경남(6.9) 순으로 높았다. 대구와 부산도 전국보다 높고, 제주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주로 호남권과 영남권의 군지역에서 조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인천 강화군에서 이들과 유사한 사망률이 나타난다.

1990~2020년 연령별 사망자(연령 미상 제외)를 살펴보면 6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구성비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1990~2020년 사이 고령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 또는 사별한 후 사망하는 건의 구성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혼 후 사망한 고령인구의 구성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의 사망자 수가 여성보다 많다. 최근 황혼 이혼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고령인구의 이혼 후 사망자 수 증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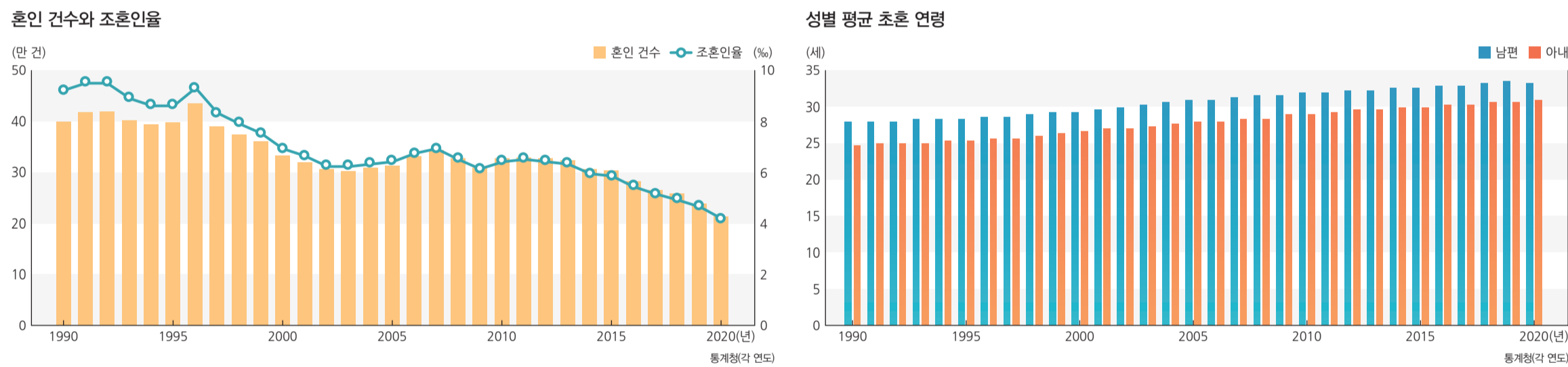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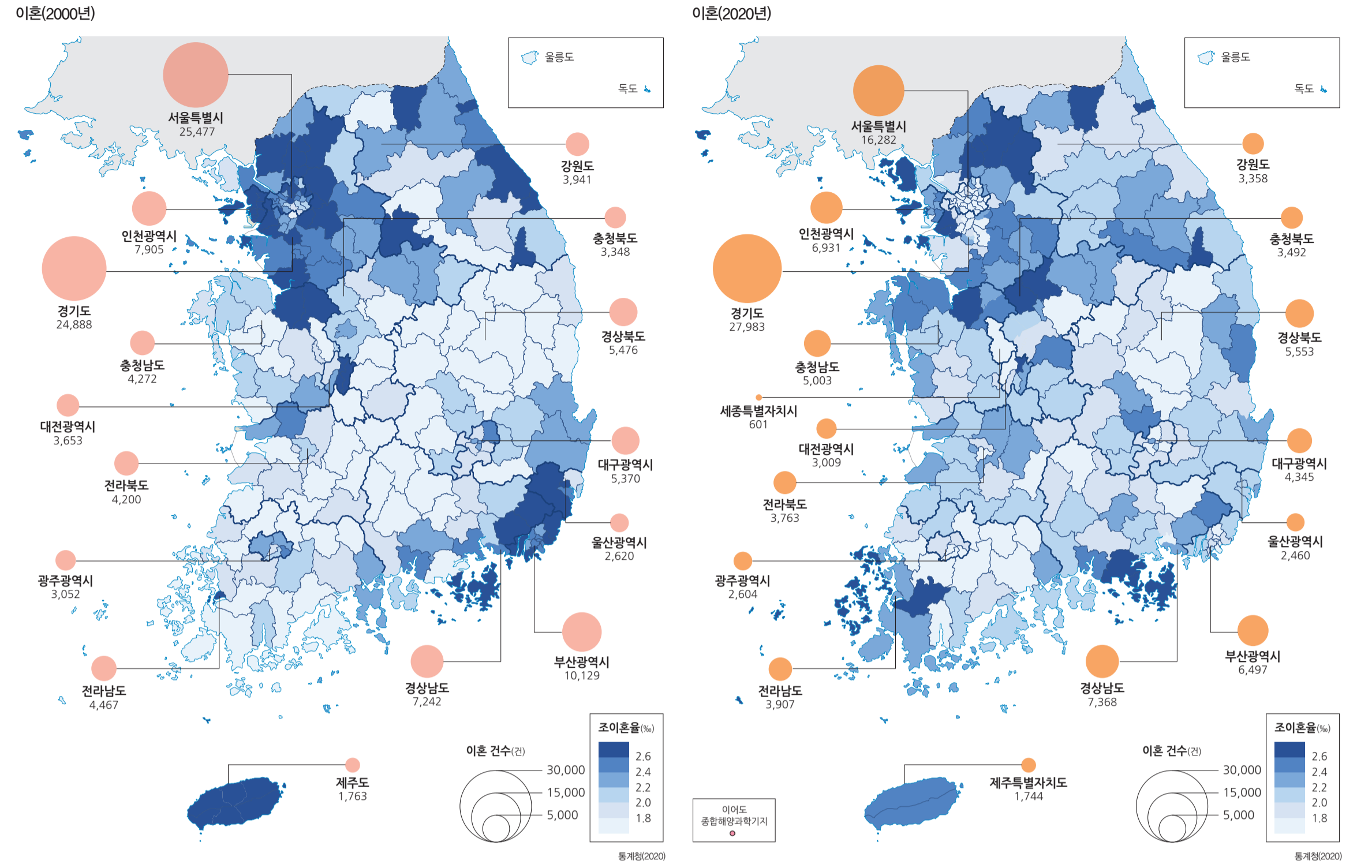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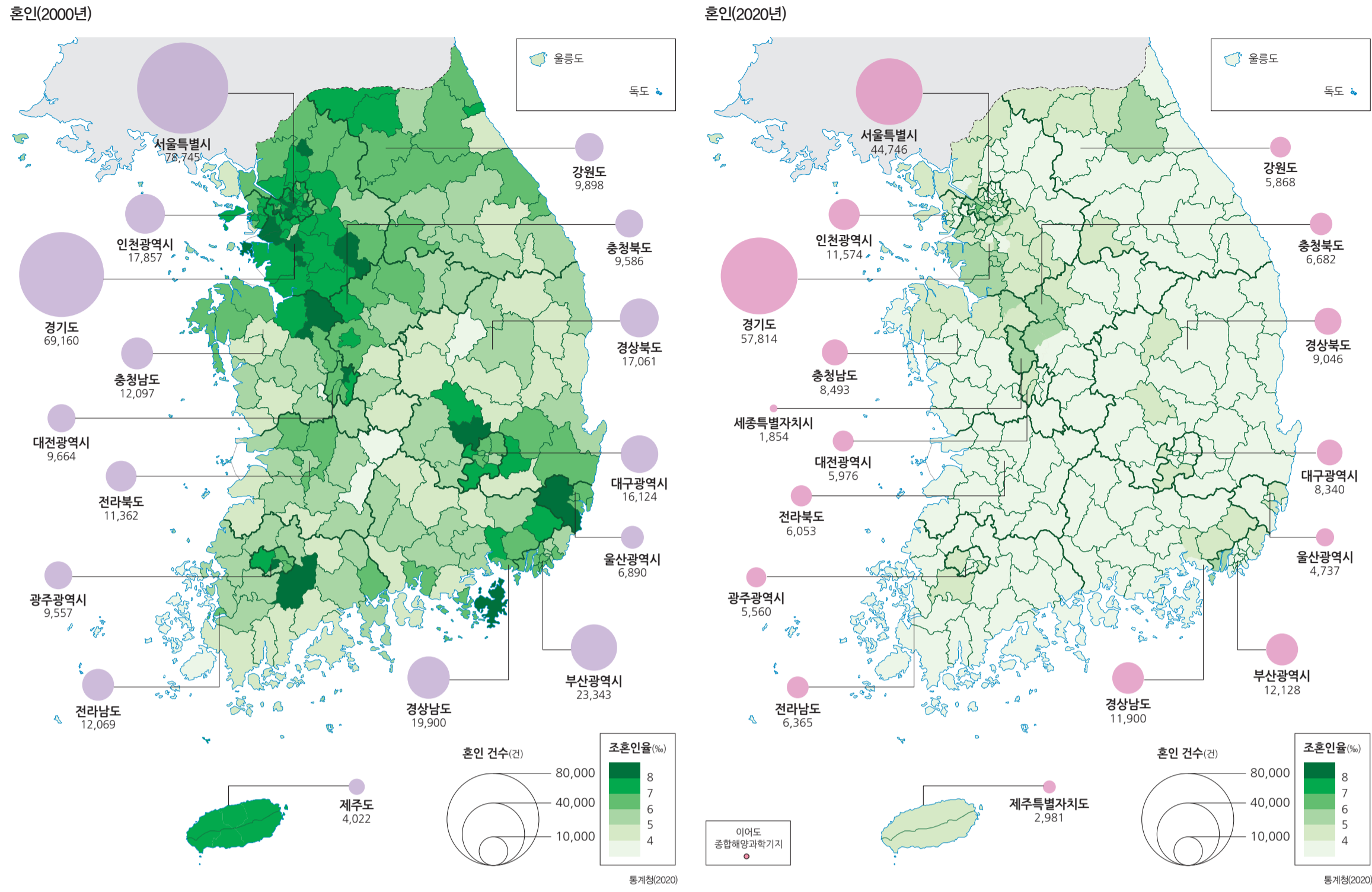
한 지역 인구의 자연적 인구 규모 변화는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에 의해 결정된다. 조출생률이 조사망률보다 높으면 그 지역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증가율이 -0.6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 상태에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시·군·구 중 72% 지역(180개 시·군·구)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았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상위 시·군은 대체로 인구소멸고위험 지역과 일치한다.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이들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증가율 상위와 하위 20개 시·군·구(2020년)

상위				
시·도	시·군·구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0.0	3.8	6.2
부산광역시	강서구	9.9	4.5	5.4
울산광역시	북구	8.4	3.3	5.1
경기도	화성시	8.2	3.4	4.8
경기도	영통구	7.2	2.5	4.7
충청남도	서북구	8.3	3.7	4.6
대구광역시	달성군	9.1	5.0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6.7	3.4	3.3
경기도	김포시	7.0	3.9	3.1
경기도	하남시	7.0	4.0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6.7	3.8	2.9
경기도	오산시	6.6	3.7	2.9
경기도	수지구	6.1	3.2	2.9
경기도	시흥시	6.6	3.8	2.8
충청북도	홍덕구	7.0	4.4	2.6
경기도	과천시	6.6	4.1	2.5
경기도	동탄구	6.1	3.6	2.5
충청북도	청원구	7.5	5.1	2.4
인천광역시	서구	6.6	4.2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5.7	3.5	2.2

하위				
시·도	시·군·구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경상남도	합천군	2.4	16.6	-14.2
경상남도	남해군	2.4	16.5	-14.1
경상북도	의성군	4.4	18.0	-13.6
전라남도	곡성군	2.4	15.5	-13.1
경상북도	청도군	2.6	15.5	-12.9
충청북도	보은군	3.5	16.4	-12.9
경상북도	영양군	3.1	15.8	-12.7
경상북도	군위군	2.5	15.1	-12.6
경상북도	청송군	3.1	15.7	-12.6
전라남도	고흥군	3.8	16.4	-12.6
경상남도	산청군	2.5	15.0	-12.5
충청남도	청양군	3.0	15.3	-12.3
전라남도	보성군	3.1	15.1	-12.0
경상북도	봉화군	3.4	15.4	-12.0
경상남도	의령군	3.2	15.2	-12.0
경상남도	함양군	2.7	14.3	-11.6
전라남도	함평군	4.1	15.4	-11.3
충청남도	부여군	2.6	13.8	-11.2
경상북도	영덕군	4.1	15.3	-11.2
전라남도	신안군	3.6	14.7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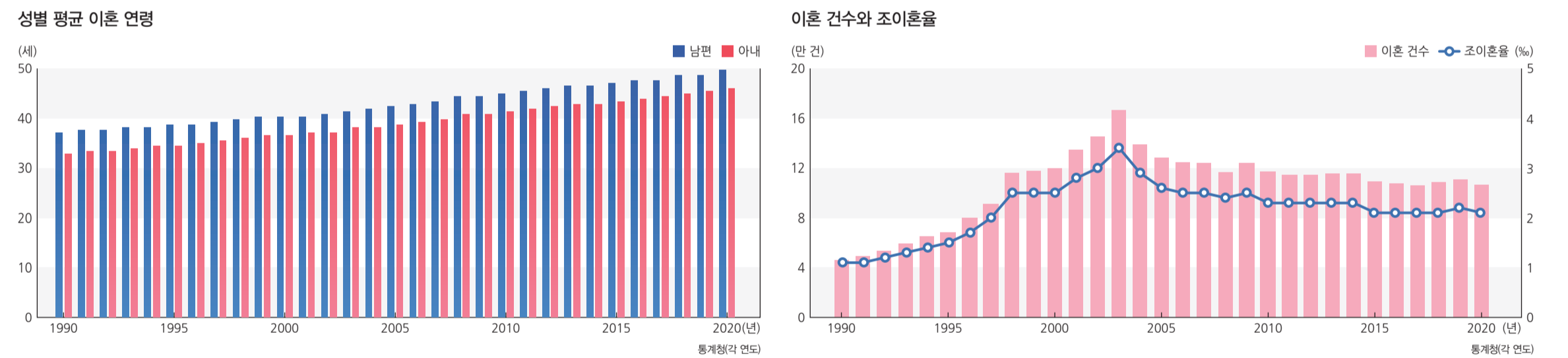
통계청(2020)



우리나라 혼인은 약 43만 5천여 건을 기록한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1980~1990년대 중반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1990~2020년 사이 혼인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1990년 약 40만 건, 2020년 약 21만 건), 조혼인율도 비슷한 추세로 낮아졌다(1990년 9.6, 2020년 4.2). 2000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36% 감소한 21만여 건

으로 나타났다. 2010년 초반에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혼인 건수가 30% 이상 감소하였다. 2000년과 2020년 각각의 시·군·구·자치도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권역의 감소율은 호남권(46%), 영남권(45%), 강원권(41%)보다 작은 31%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혼인 감소는 2000년과 2020년 조혼인율의 시·군·구 분포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시기 간 조혼인율은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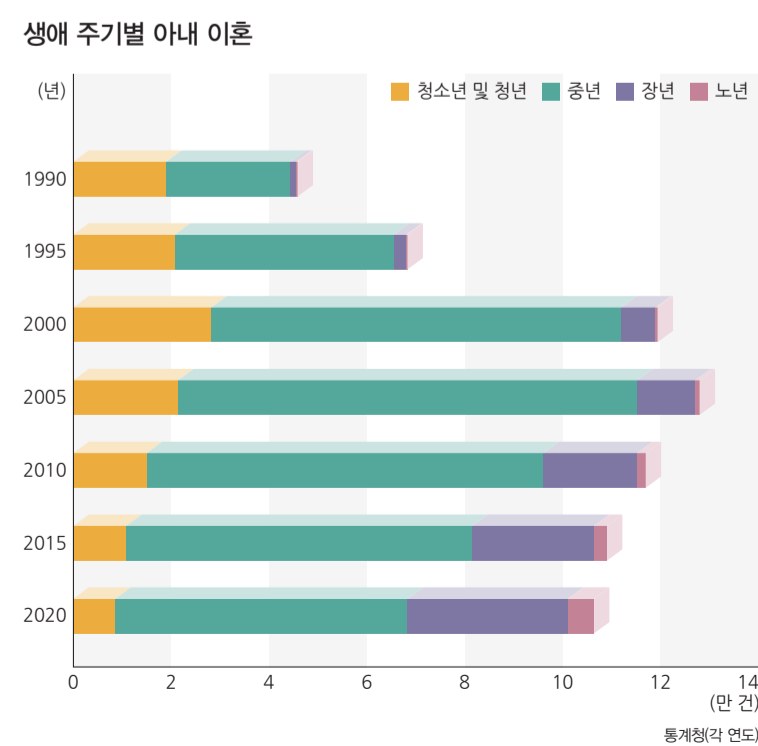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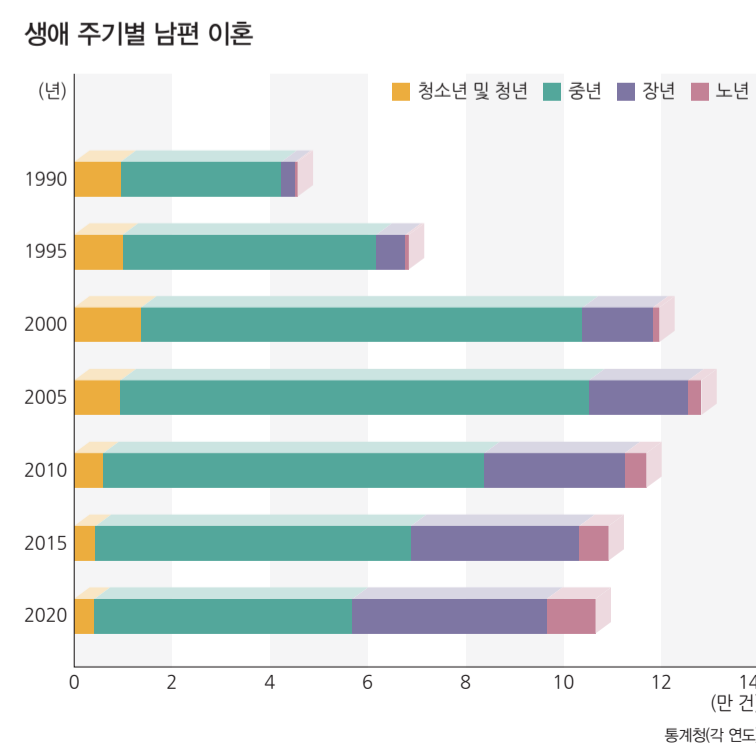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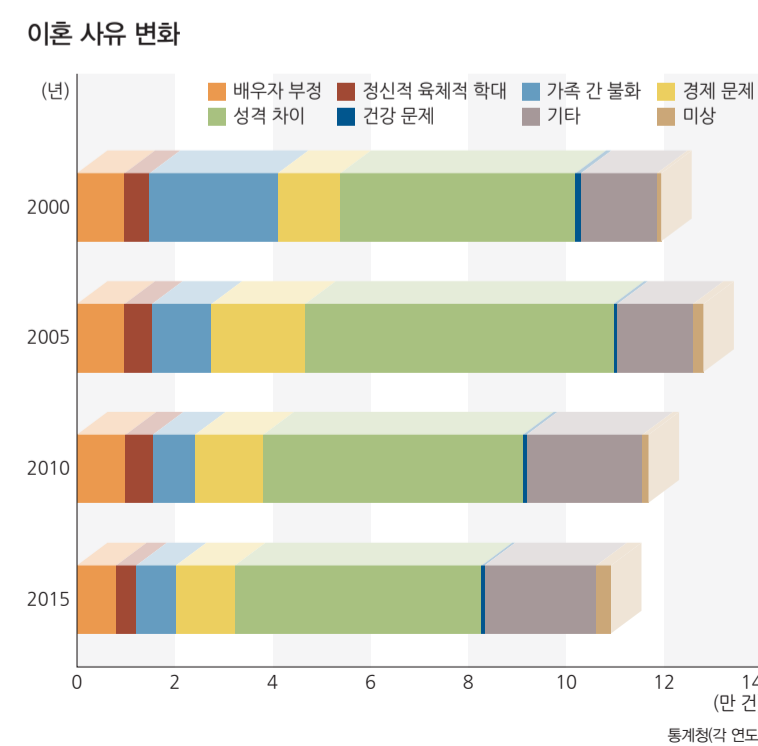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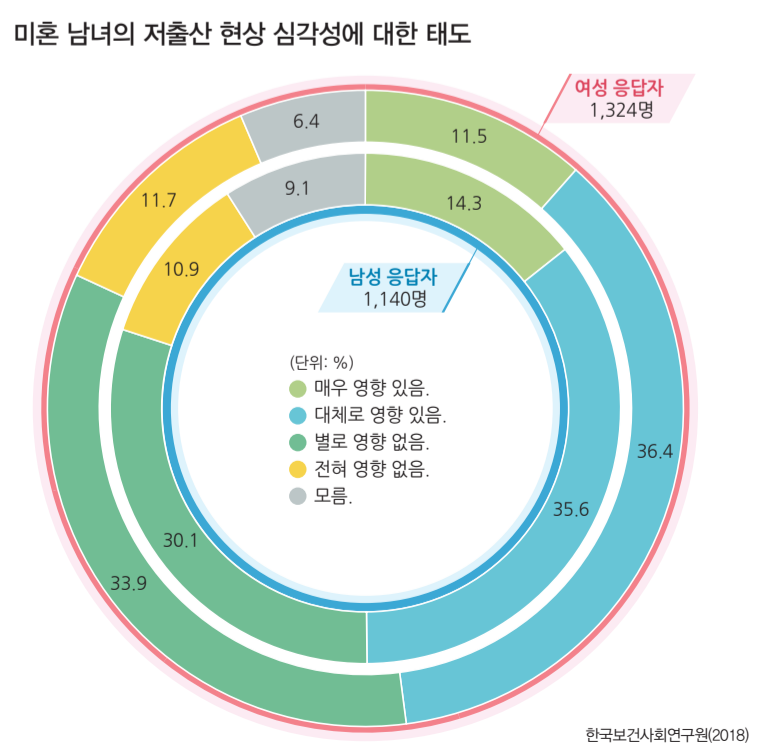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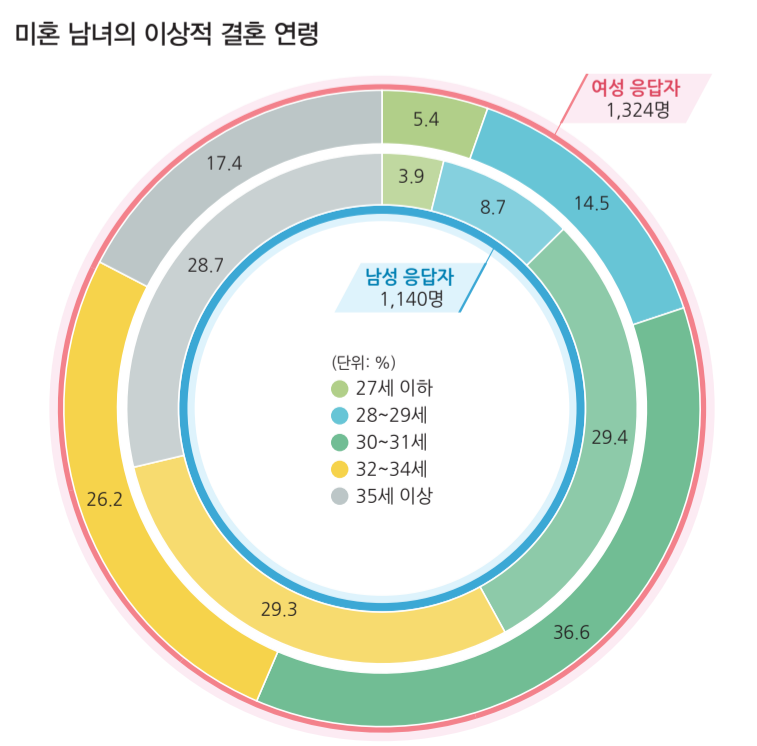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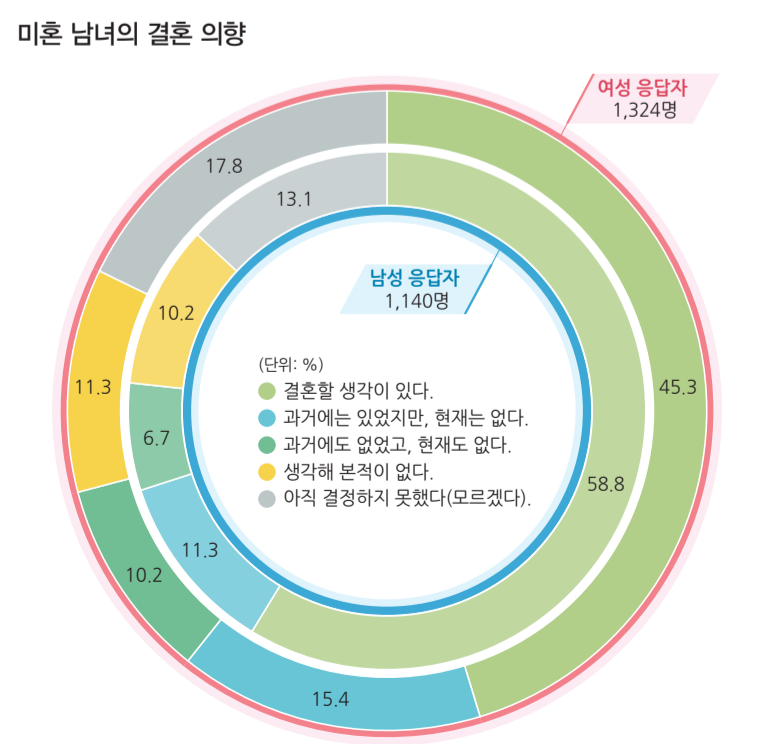
한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조혼 연령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0년 대비 2020년 남성의 평균 조혼 연령은 5.4세, 여성의 경우 약 6세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남녀의 조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만한 경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에 수행한 최근 조사에서도 반영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남녀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상적 결혼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저출산 현상의 인식에 관



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 영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출산 심화 현상이 장차 더 강화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 30년 동안(1990~2020년)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은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지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2000년과 2020년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에 관한 분포 지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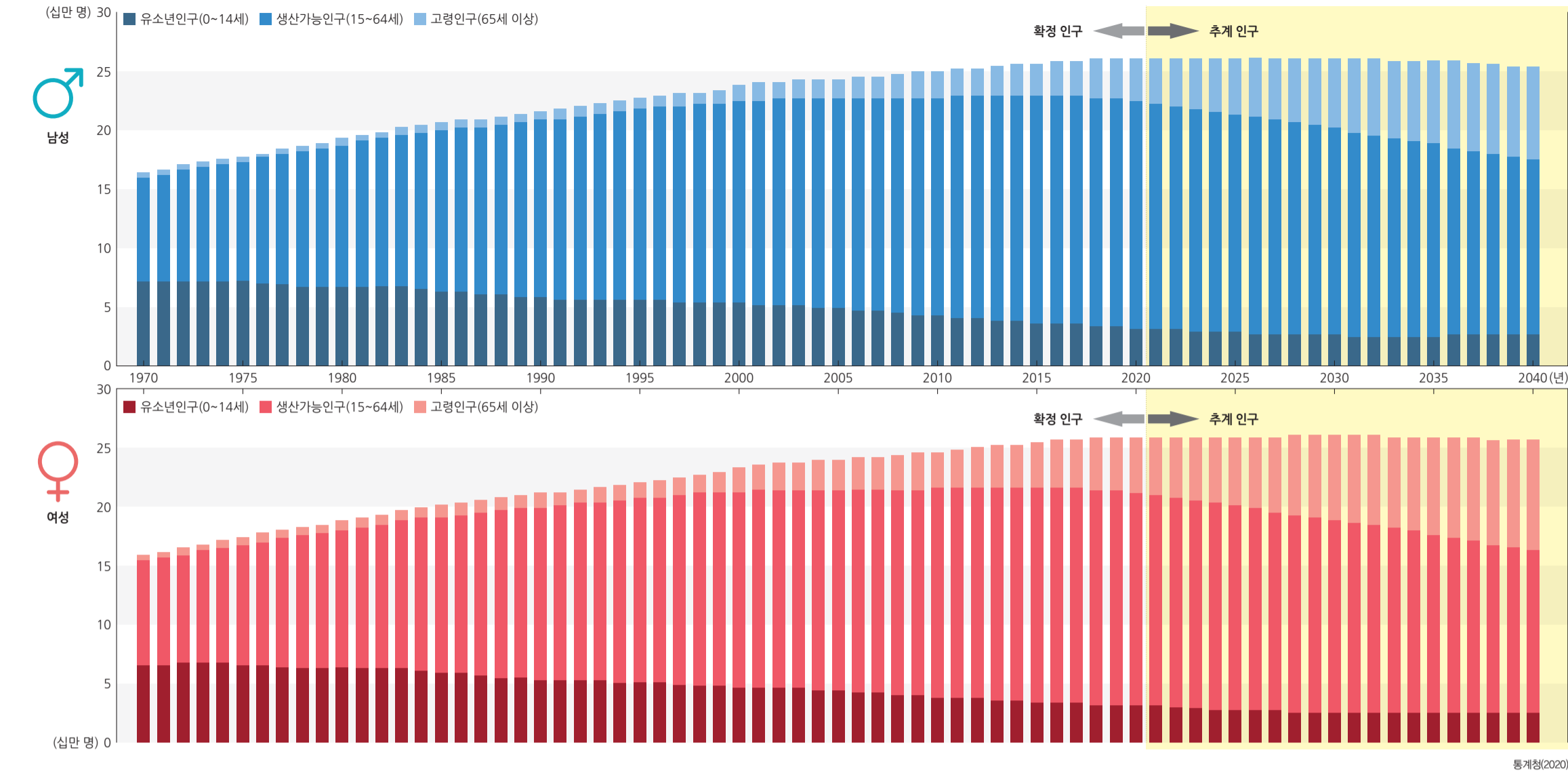
도 반영된다. 같은 기간 남녀 이혼 연령의 평균도 30대에서 40대로 높아지고 있다. 2020년 현재 평균 이혼 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4세 많다(남성 49.4세, 여성 46세). 이러한 평균 이혼 연령의 증가는 생애 주기별 남녀의 이혼 건수에서도 나타난다. 최근까지 남녀 모두 중년층(49세) 이하의 이혼은 감소하고 있으나, 장년(50~65세) 및 노년(65세 이상)의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1990년과 비교할

때 2020년의 장년층 남성과 여성의 이혼은 각각 약 1300%와 2400% 증가하였고,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이혼은 각각 약 2000%와 5400%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에서 황혼 이혼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한편 2000~2015년 사이에 발생한 이혼은 성격 차이가 주된 사유로 나타나며, 가족 간 불화에 의한 이혼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구 추계

성·연령별 추계 인구



추계 인구는 시작 연도의 7월 1일 기준 인구에 출생, 사망 및 국제 이동 변동 요인에 관한 자료를 반영하여 장래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추정한 인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변동 요인의 저위, 중위 그리고 고위 수준별로 구분하여 5년마다 미래 인구를 추계한다. 최근 추계 인구는 2017년 7월 1일의 기준 인구에 출생과 국제 순이동을 더하고 사망을 제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하여 추정된 인구 전망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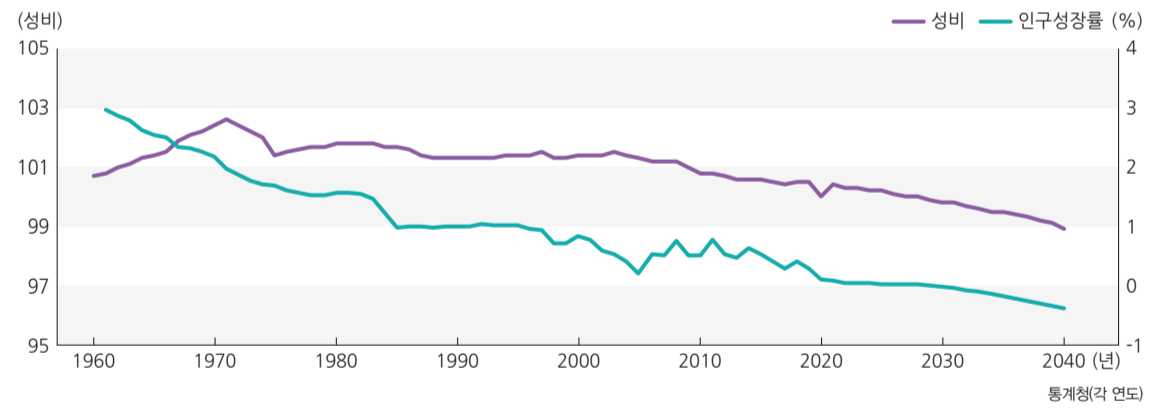
2017년 추계 인구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의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여 2040년에는 5,085만 수준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 구성비는 2005년까지 99%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2040년에는 9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인구성장률도 계속 낮아져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40년에는 -0.38%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성비는 2028년까지 점차 낮아져 남녀 인구의 균형이 이루어진 후 2029년 이후부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2만 명 수준이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져 인구의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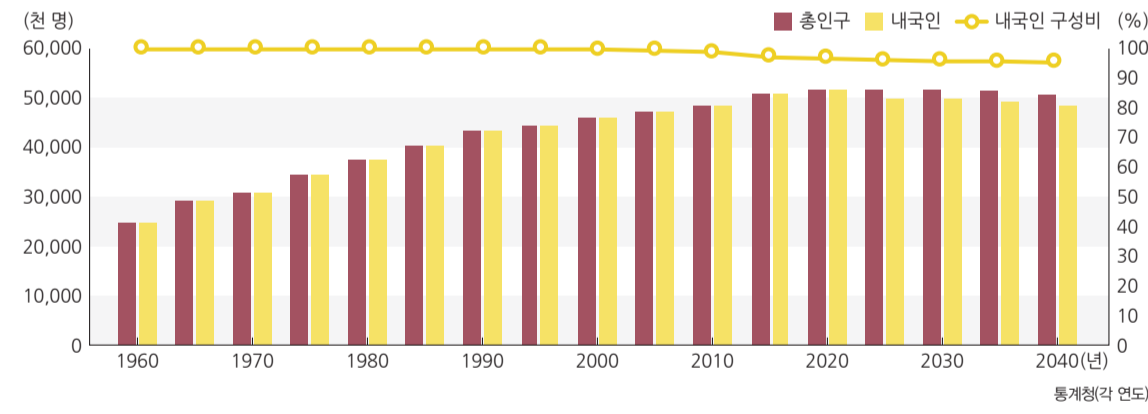
감소가 시작되었다(자연증가 약 -32천 명, 자연증가율 -0.6%), 2020년 5,34명이던 조출생률은 2040년에 4.5명으로 감소하지만, 합계출산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함께 우리나라 중위연령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의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약 10세 증가한 54세로 전망된다. 여성의 중위연령(56세)이 남성보다(53세)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 구조 추계를 살펴보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비 2040년의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2.3% 포인트와 15.6% 포인트 낮아지고, 고령인구는 17.9%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점차 감소하지만,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높아져 총부양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40년의 노령화지수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약 21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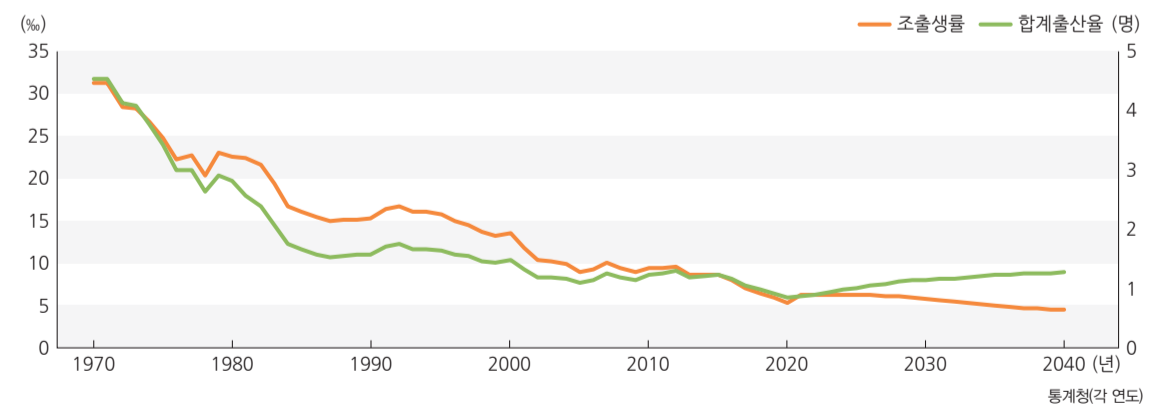
인구성장률과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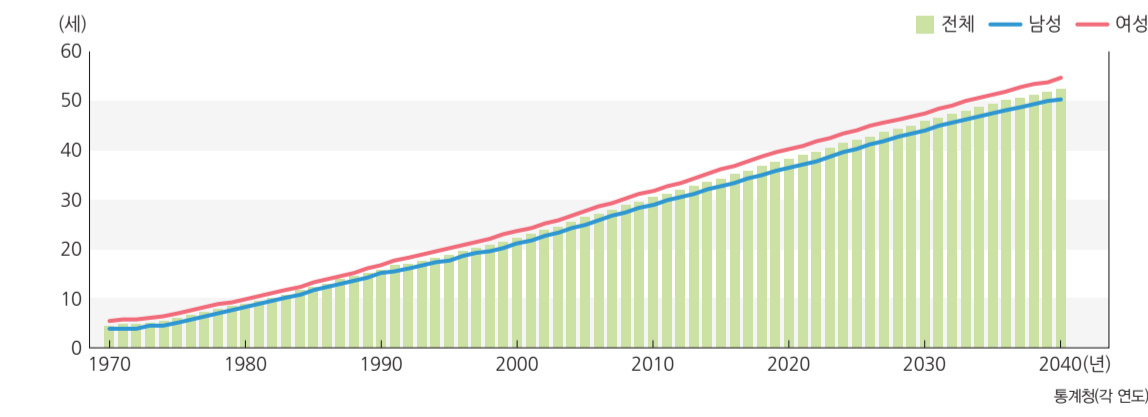
총인구와 내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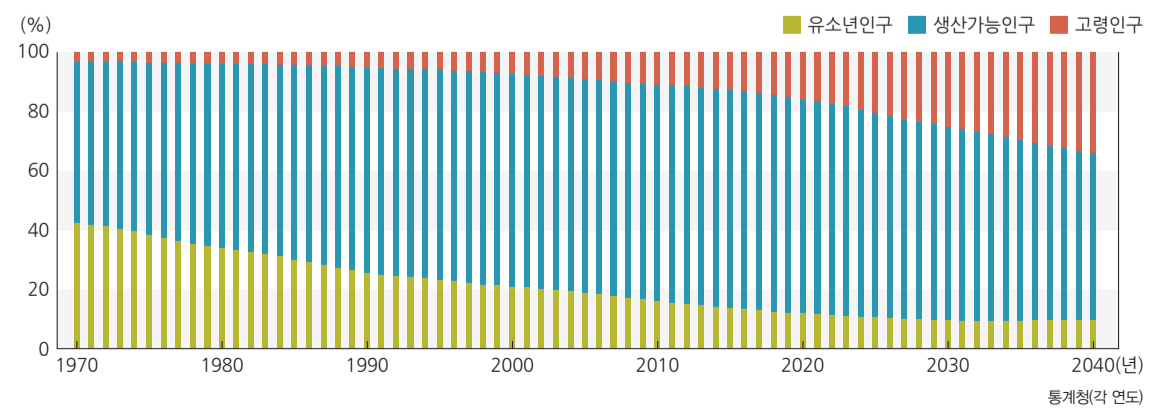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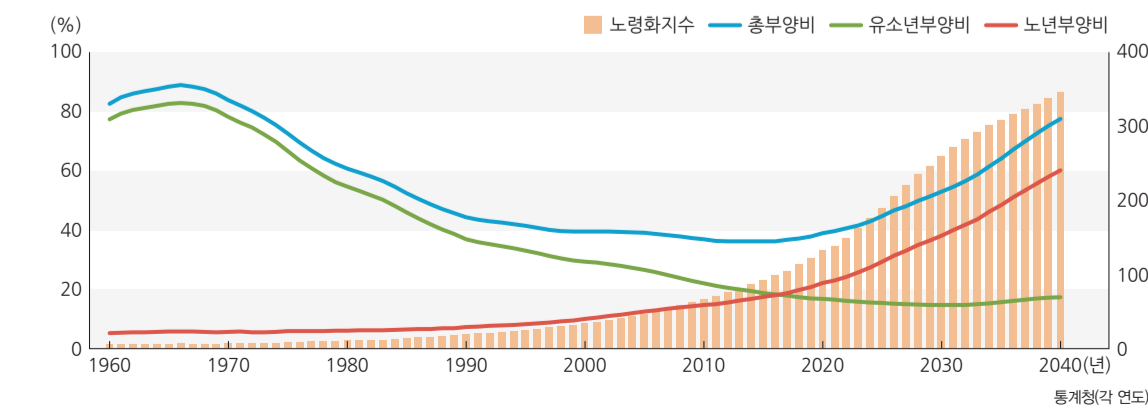
성별 중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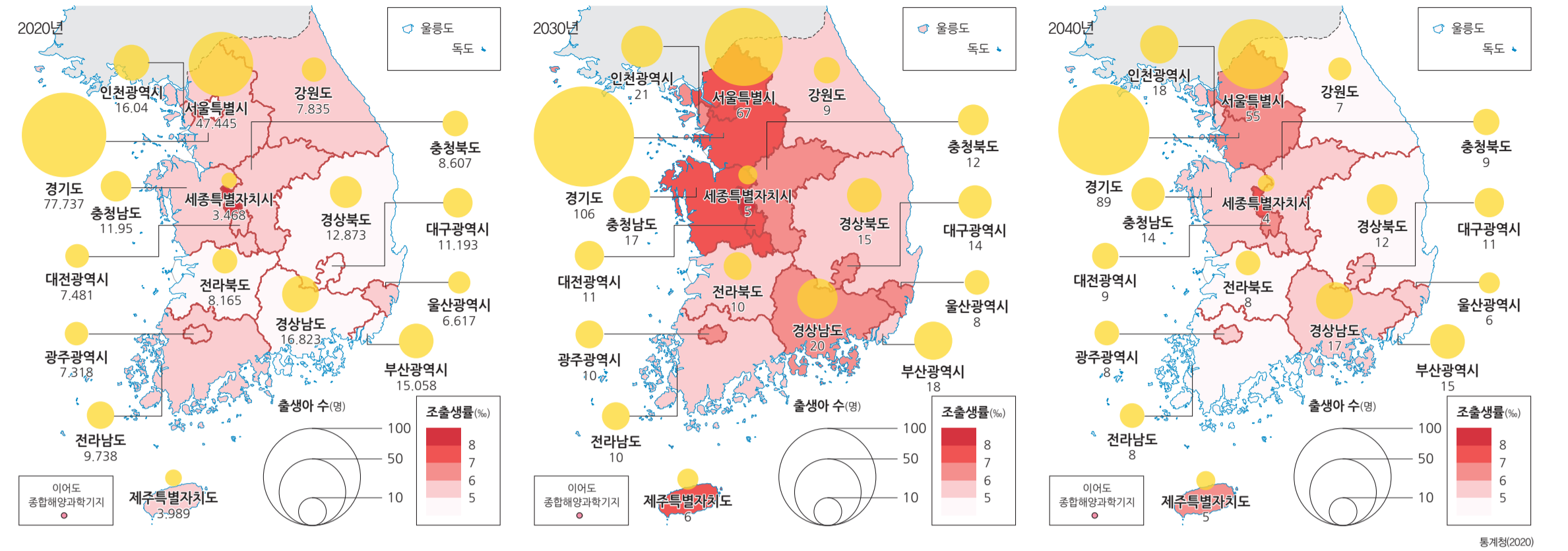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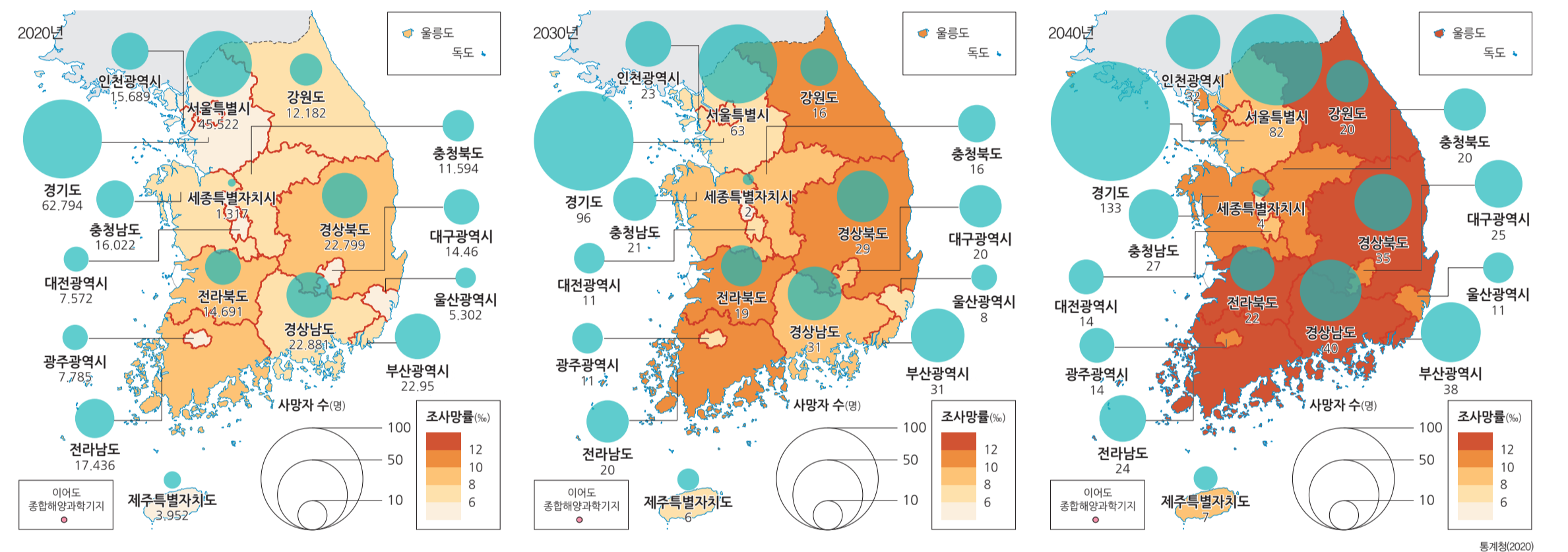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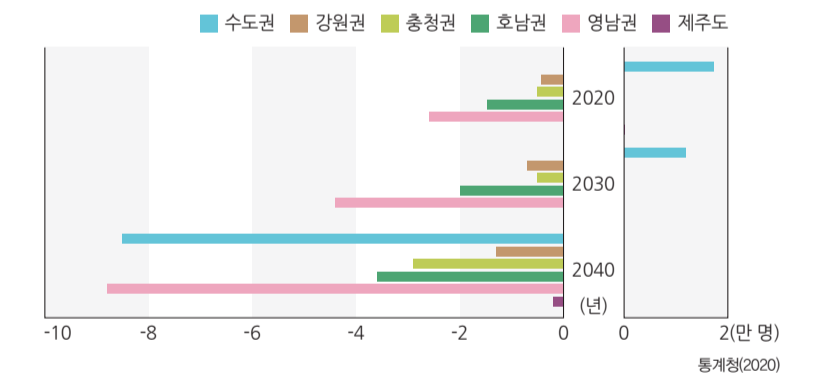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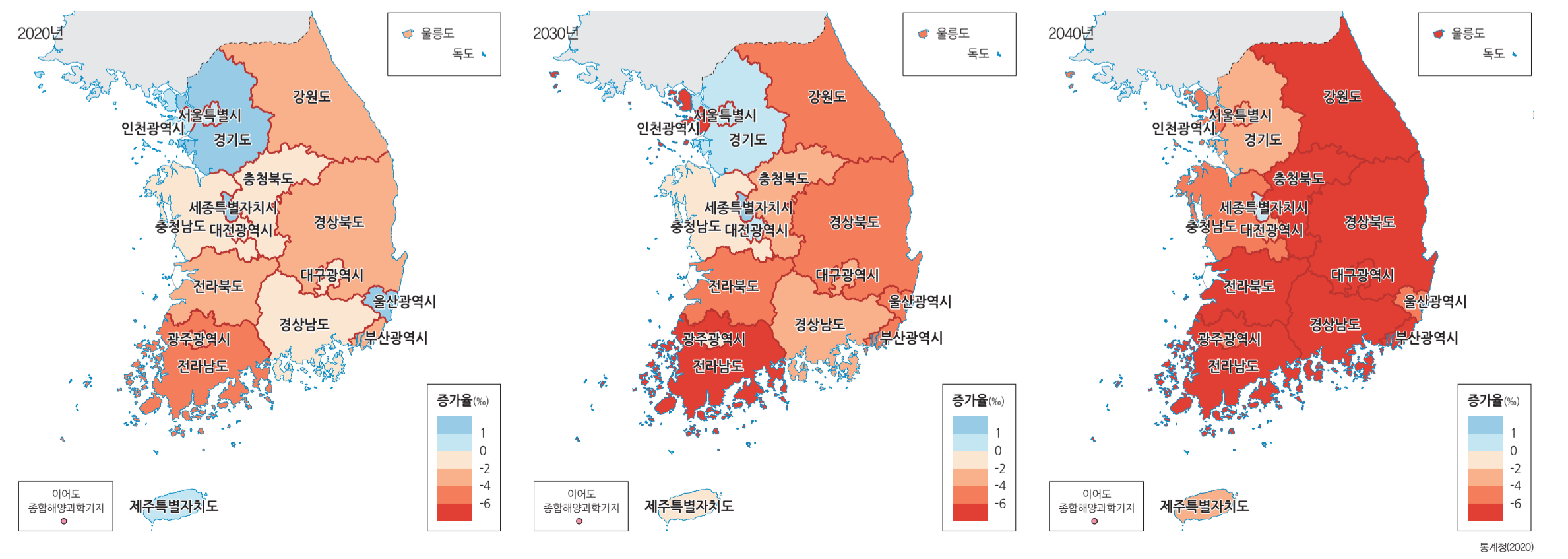
2020년 총조사 인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인 5.3명보다 낮은 조출생률은 강원, 대전, 광주, 경남, 서울, 대구, 전북, 부산에서 나타나며, 이들 중 부산이 4.5명으로 가장 낮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은 세종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국 평균(5.9명)보다 높은 조사망률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에서 나타나며, 대구와 부산의 조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 제주, 서울, 울산, 경기,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인구 변동 요인의 중위 수준을 고려한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제주, 대전, 서울, 경기와 세종에서만 인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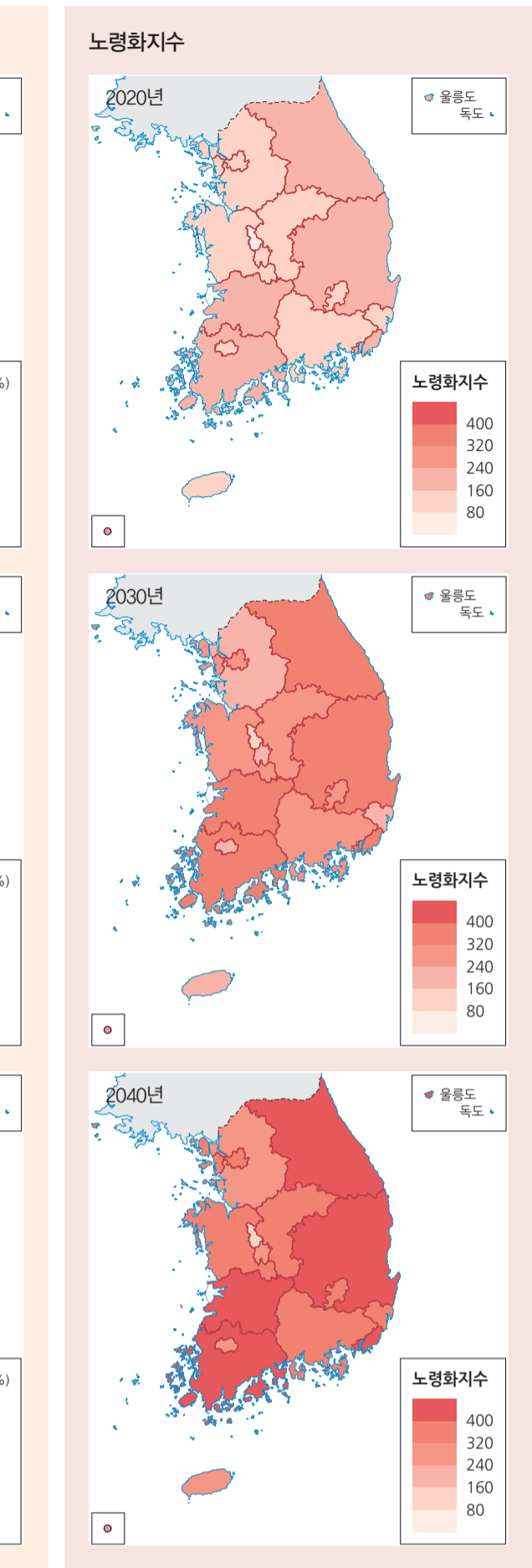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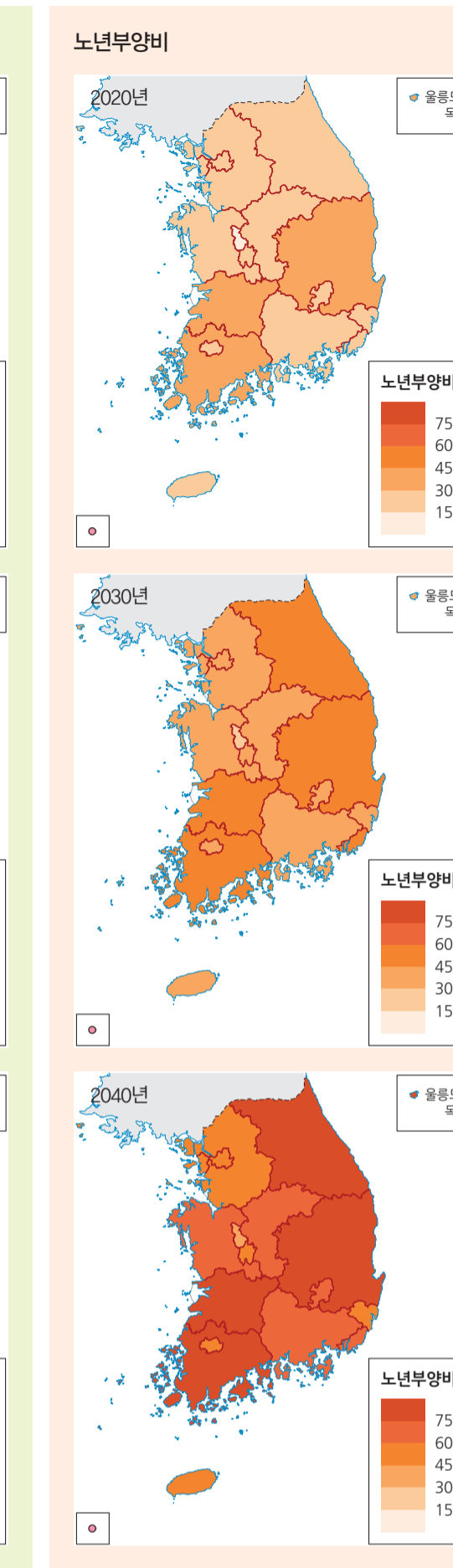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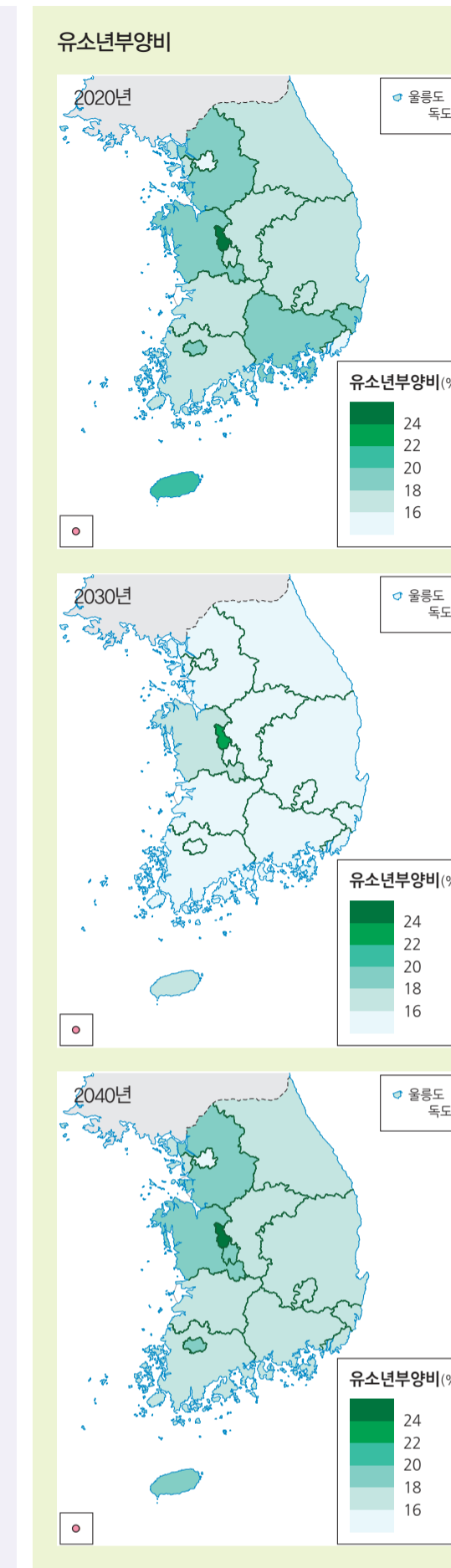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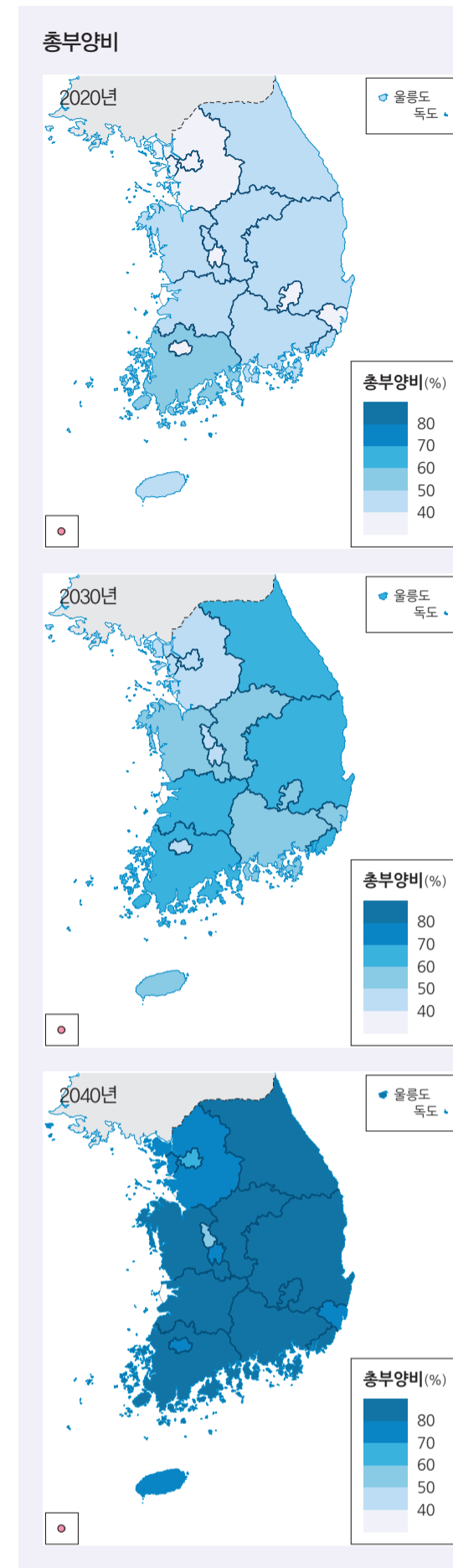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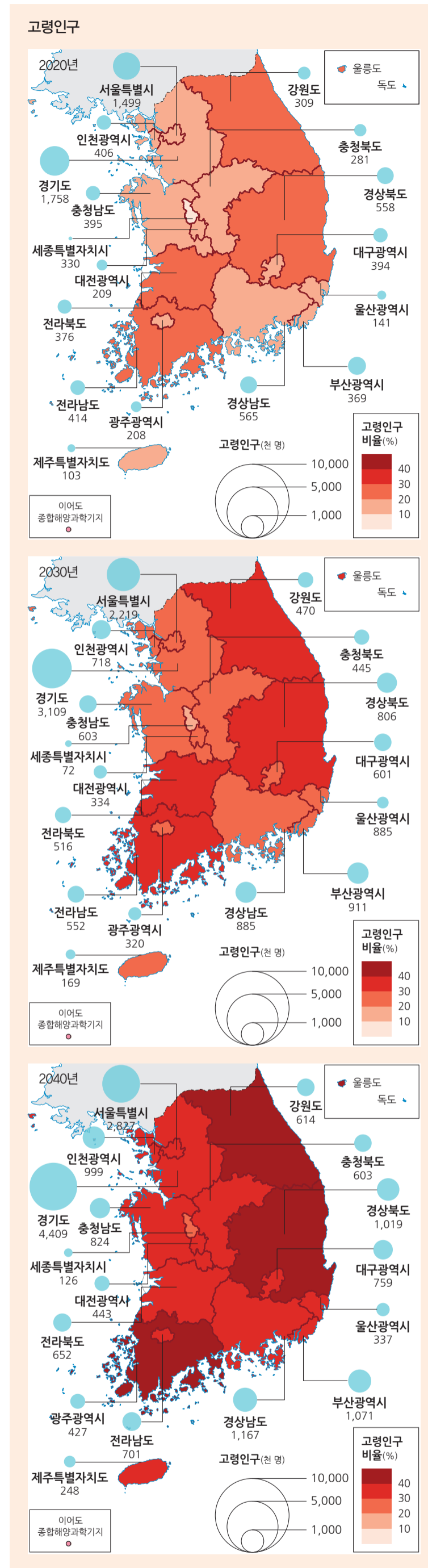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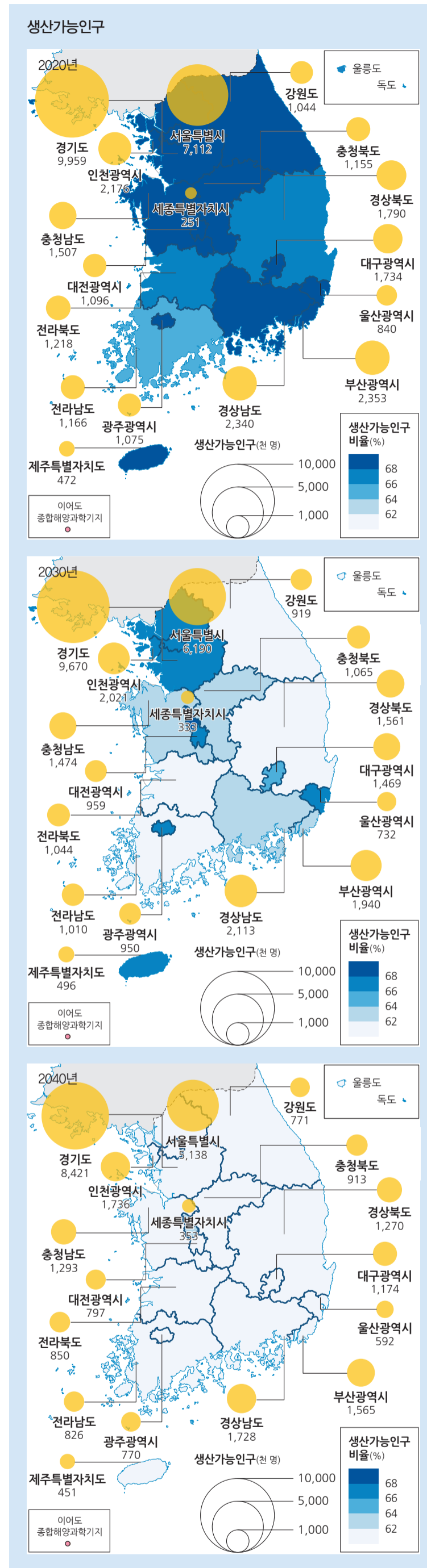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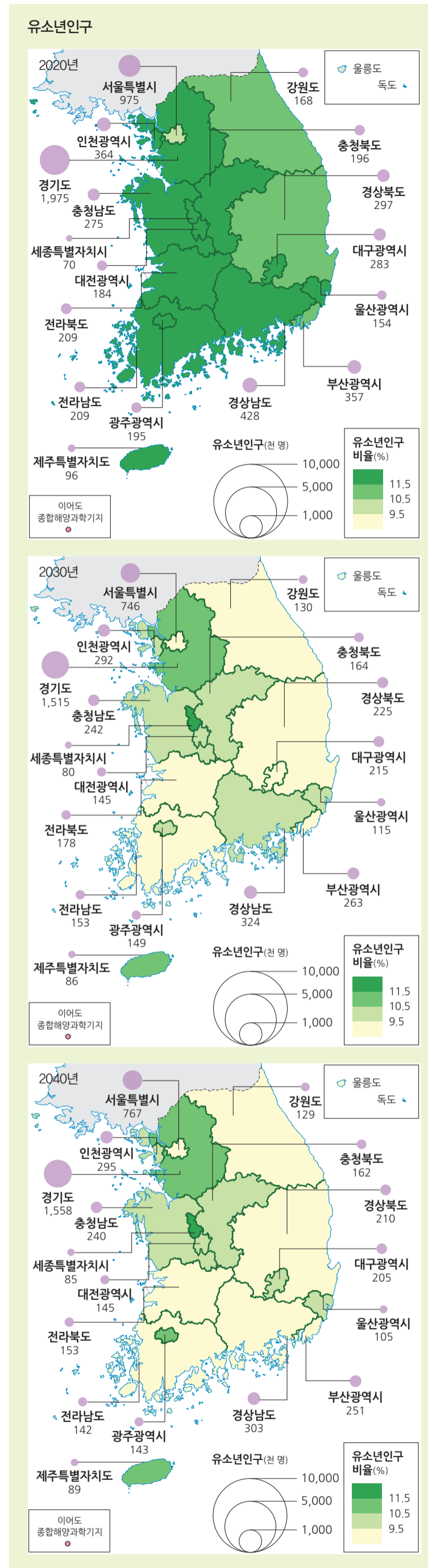
자연적으로 증가하나, 204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전망된다. 인구의 자연증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연증가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며, 영남권의 자연적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인구 추계를 반영한 자연증가의 경우 2030년은 2020년과 비슷한 경향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2040년에는 모든 권역에서 인구의 자연증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자연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 8만 5천 명, 영남권 8만 8천 명).

권역별 출생, 사망과 자연증가



자연증가율





통계청(2020)

이러한 인구 변화에 따라 부양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 전국 노년부양비는 약 1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도권은 노년부양비는 이보다 높은 18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큰 폭의 노령화지수 증가는 이를 반증한다. 이외는

달리 권역별 유소년부양비 증가는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년부양비 부담에 따라 총부양비도 각 권역에서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지도를 살펴보면 전국 및 권역별 변화와 같이 큰 폭의 노년부양비 증가와 소폭의 유소년부양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부양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40년 기간 동안 노령화지수는 세종시에서 가장 낮으며, 전남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현재와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현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구성비는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난다. 2020~2040년 기간 동안 수도권, 충청권과 제주도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권역에서는 이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비중도 유소년인구 비중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도별 총인구 대비 각 인구 집단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유소

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는 추세를 찾아볼 수 있다. 2020년과 비교한 2040년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전국 평균 15.5%)는 유소년인구 감소(전국 평균 2.7%)보다 큰 폭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고령인구 변화의 경우 서울과 세종은 전국 평균(18.1%)보다 낮은 반면 전라도와 경상도는 이보다 높게 예상된다. 2020~2040년 사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 전체의 약 25% 이상이 경기도에, 약 15%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 집

중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은 대체로 광역·시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17% 이상), 2030년과 2040년에 이르러 이들 지역의 고령인구가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시기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권역별 인구 (단위: 명)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전국	51,829,136	6,254,157	37,287,736	8,287,243	51,926,953	5,000,090	33,947,290	12,979,573	50,855,376	4,982,614	28,649,225	17,223,537
수도권	26,043,325	3,133,928	19,246,269	3,663,128	26,480,419	2,552,593	17,881,768	6,046,058	26,149,977	2,620,357	15,295,458	8,234,162
강원권	1,521,763	168,414	1,044,372	308,977	1,519,322	130,352	918,898	470,072	1,513,324	129,199	770,505	613,620
충청권	5,651,092	724,363	4,008,421	918,308	5,916,175	631,581	3,831,325	1,453,269	5,984,409	632,478	3,355,923	1,996,008
호남권	5,069,146	612,712	3,459,080	997,354	4,852,329	459,192	3,004,936	1,388,201	4,663,540	438,051	2,446,293	1,779,196
영남권	12,872,952	1,518,764	9,057,692	2,296,496	12,408,040	1,140,275	7,814,771	3,452,994	11,757,182	1,074,005	6,330,411	4,352,766
제주도	670,858	95,976	471,902	102,980	750,668	86,097	495,592	168,979	786,944	88,524	450,635	247,785

통계청(2020)

권역별 부양비 (단위: %)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전국	39.0	16.8	22.2	132.5	53.0	14.7	38.2	259.6	77.5	17.4	60.1	345.7
수도권	35.3	16.3	19.0	116.9	48.1	14.3	33.8	236.9	71.0	17.1	53.8	314.2
강원권	45.7	16.1	29.6	183.5	65.3	14.2	51.2	360.6	96.4	16.8	79.6	474.9
충청권	41.0	18.1	22.9	126.8	54.4	16.5	37.9	230.1	78.3	18.8	59.5	315.6
호남권	46.5	17.7	28.8	162.8	61.5	15.3	46.2	302.3	90.6	17.9	72.7	405.2
영남권	42.1	16.8	25.4	151.2	58.8	14.6	44.2	302.8	85.7	17.0	68.8	405.3
제주도	42.2	20.3	21.8	107.3	51.5	17.4	34.1	196.3	74.6	19.6	55.0	279.9

통계청(2020)